



정종미 / 봄(Spring)  
한지, 안료, 염료, 콩담기법(korean paper, pigment, dye, bean tempera),  
83cm×68cm, 2002

전라도의 한마을을 봄바람을 타고 이리 저리 돌아다니다.  
쪽빛 같은 하늘에서 뿌려주는 따사로운 햇살.  
언덕 넘어 고개로부터 불어오는 투명한 바람.  
땅을 밟으며 땅에 뿌리내린 풀과 나무와 함께 흔들리다.

쪽과 황벽으로 녹색을 만들고 주사를 아교와 섞어 장지 위에 올린다.  
풀 한 포기, 이슬의 속삭임, 투명한 색감, 질감...  
안료와 염료가 만나 이루어진 공간.

봄이다!



고려대학교 커뮤니케이션팀 Tel. 02-3290-1064 e-mail. kutoday@korea.ac.kr

값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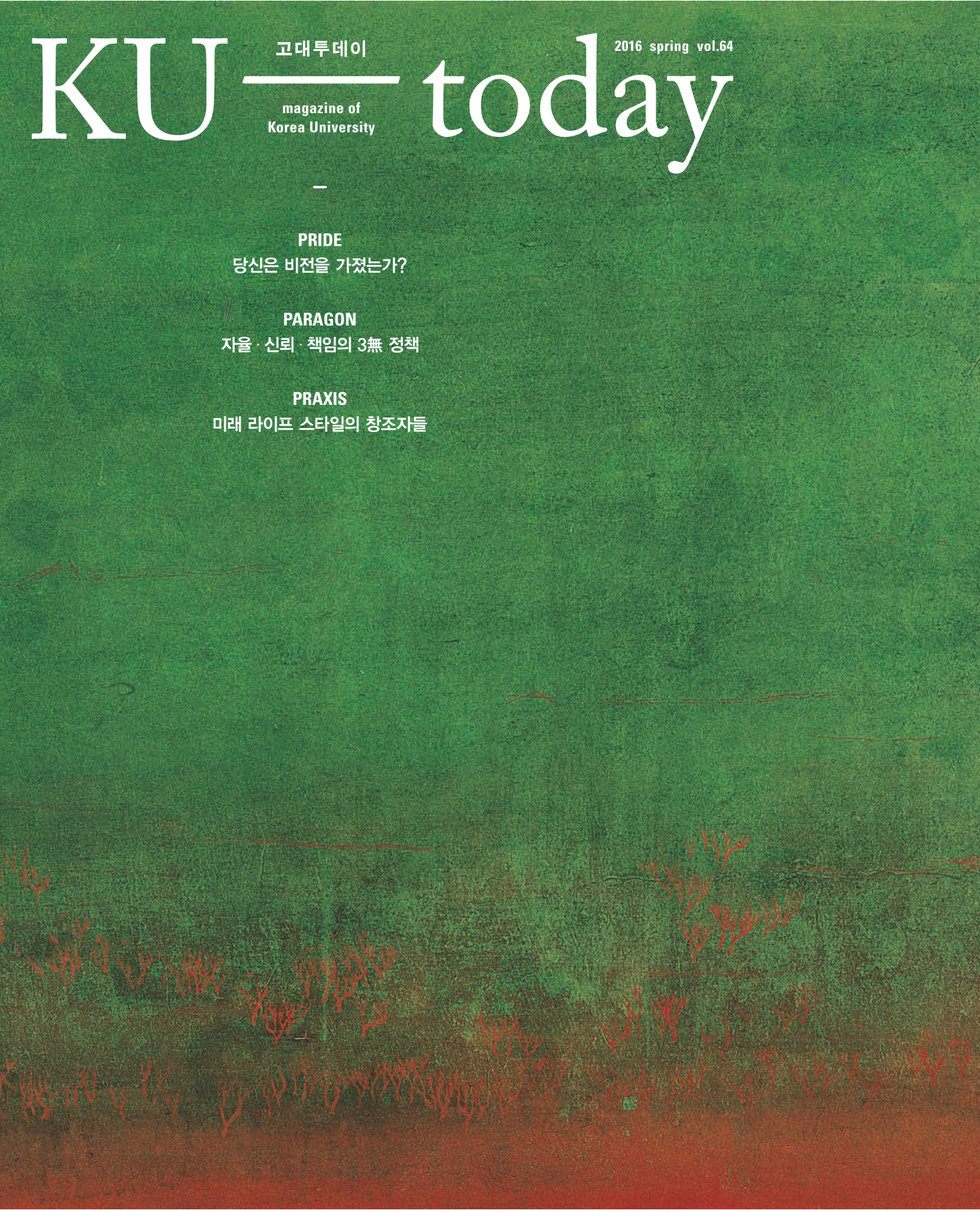
Sail together

a new

vision

KU—today

고대투데이 magazine of Korea University 2016 spring vol.64



# KU—today

magazine of  
Korea University

2016 spring vol.64

PRIDE  
당신은 비전을 가졌는가?

PARAGON  
자율 · 신뢰 · 책임의 3無 정책

PRAXIS  
미래 라이프 스타일의 창조자들



contents

<KU-today>  
2016년 봄호 통권 64호  
발행인 엄재호  
편집인 마동훈  
발행처 고려대학교  
편집실 커뮤니케이션팀

제작대행 (주)봄바람  
기획 사이시옷  
디자인 라이크디스  
취재·글 노유정·권성수·박미경  
사진 studio UND  
인쇄 고문당

PRIDE wave & wind

- 02

THEME\_ photo & essay

먼저 꿈꾸는 사람이 되어라
- 06

THEME\_ people

멀리 세운 비전이 진짜 비전이다
- 10

THEME\_ discovery

자발적 몰입이 세상을 바꾼다
- 12

THEME\_ art

전통, 그 눈부신 비전의 이름
- 16

THEME\_ on campus

고려대가 제시하는 미래대학의 길,  
KU the future
- 20

THEME\_ book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길,  
함께하면 좋을 책

PARAGON vision & key

- 22

현장n이슈\_ 3無정책

자율·신뢰·책임을 강조하는  
3無 정책
- 24

CLOSE UP\_ honor code

‘양심앞에 뒤흔친 우리를 위하여’  
아너코드
- 26

KU TODAY\_ Journal

111주년 맞은 고려대의 비전선포,  
KU The Future 2016 열려 外
- 33

BOOK IN BOOK\_ KU-MAGIC

신중 감염병을 막아내는  
KU-MAGIC만의 방법 外

PRAXIS harmony & obligation

- 46

CRIMSON CHAIR  
FUTURE OF MOBILITY

한민홍 대표, 김경현 교수, 성주완 교수
- 52

key를 잡다\_ people

여성, 세상을 바꿀 절반의 별들  
세계여성단체협의회장 김정숙 교수
- 56

WELLBEING FINDER\_ 마을공동체

마을 안에서 다함께,  
마음 나누며 따뜻이
- 60

새기다\_ 크림스 센터

소품으로 만나는 크림스 홀릭
- 64

실천하다#1\_ Noblesse oblige story

“장학금은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꿈을 위한 시간이자 기회”
- 66

실천하다#2\_ KU PRIDE CLUB

고대사랑 게시판을 채운  
기부자들의 메시지
- 70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자 명단



PRIDE

PRIDE 섹션은 개척하는 지성으로서 고대인들이 생각해보아야 할 인생의 질문을 던집니다.  
위로와 힐링의 메시지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도전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wave & wind

주소 변경 및 신규 구독 신청은  
kutoday@korea.ac.kr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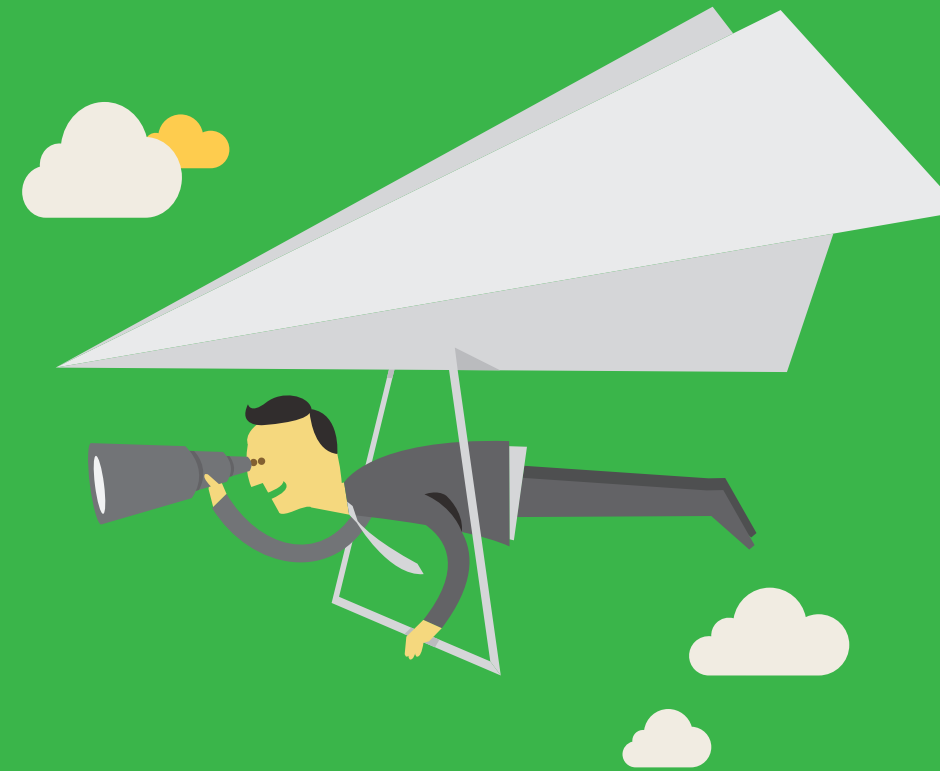
2016년 고대투데이의 표지는  
디자인조형학부 정종미 교수의 작품으로 꾸며집니다.  
계절을 상징하는 전통 색상으로 표현된  
4번의 표지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며,  
작품을 비롯한 표지디자인 및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먼저 **꿈꾸는 사람**이 되어라!

Build a dream and  
the dream will build you

“현실만 바라보는  
지성은 비판과 걱정 일색이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는  
긍정과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갖자.”

Be a realist  
but have unrealistic dream

- 체 게바라 -

“무엇이 되고자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일에  
꿈을 팔지 말아라

그저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는  
꿈을 품어라  
그것이 바로 진짜 ‘꿈’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할 일은  
꿈을 쫓기보다  
잃어버린 진짜 꿈을  
찾는 것이다.”



## v i s i o n

## 되 도 록 멀 게 , 가 급 적 길 게

2초쯤 멈췄을까. 그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을 토해내던 그가 딱 한 번 숨을 고르고 간다.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는 물음 앞에서다. 행복한 적이 없어서 말문이 막혔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되레 그 반대다. 살아온 모든 날들이 기쁨으로 충만했기에,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선뜻 대답하지 못한 것이다. 공부 할 땐 공부 덕분에 행복하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땐 가족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 바로 그다. 삶의 단 한 순간도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살아본 적이 그는 없다. 인생을 길게 바라보고,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즐기며 살아온 결과다. 비전을 세우는 방식은 고스란히 그 사람의 행복과 연결된다. 그가 그 사실을 증명한다. “비전을 제대로 품으려면 멀리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길게 바라봐야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의 ‘이유’가 나오거든요. 가령 대학에 가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쳐요. 인생을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은 ‘왜’ 대학에 가려는지 본인이 잘 알아요. 만약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대학엘 가려 했다면 대학에 떨어져도 실패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면 되니까요. 하지만 ‘왜’라는 질문 없이 단지 대학에 가는 게 목표인 사람은 입시에 떨어지는 순간 실패자가 돼버려요. 비전을 멀리 잡을수록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죠.”

선택의 여지도 많아지지만 ‘휴식’의 여유도 많아진다. 만약 10년짜리 목표를 세우면 6개월 정도는 허튼짓을 해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 3년짜리 계획을 잡으면 6개월이나 땀 짓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안에 꼭 해야 할 몇 가지 것들. 그런 식의 비전들이 문득 ‘수상’해진다.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지에 닿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질문은 사라지고 당위만 남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전이 아닌지도 모른다.

## 비 전 은 ‘상 상 력’ 이 다

몇 년 전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베스트셀러로 ‘작각’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유쾌하게 들려줬던 그는 최근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화제작으로 ‘중2병’에 걸린 한국인의 심리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가 대한민국을 사춘기에 비유하는 건 ‘폭풍성장’이 끝나고 자아정체감을 갖는 시기가 지금의 우리 사회이기 때문이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다. 제대로 된 비전이 마침내 필요해진 셈이다.

“근데 비전을 세우라 그러면 다들 똑같은 비전을 세워요. 남을 따라하는 건 내 비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상상력이에요.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비전이 나오니까요. 비전을 세우라고 말하기 전에, 많이 상상하란 말을 먼저 해주고 싶어요. 가령 대학생이라면, 한국에서 얼마 안 되는 취업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대신 외국에서 취업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재능들을 사용할 방법을 알아보는 거죠. 어떤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 젊은이들에게 빨리 보여줘야 해요.” 자기만의 ‘미칠 거리’를 찾는 것. 그는 지금의 한국인이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비전으로 그것을 꼽는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저성장시대. 모든 것이 천천히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 느린 사회에선 물질적 성공과 성장 외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이다. 남들에겐 미친 짓으로 보여도 자신에겐 행복이 되는 무엇.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비전 있는 사회’라고 그는 생각한다.

멀리 세운  
비전이

그는 ‘망원경’을 든 심리학자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대신, ‘그런 마음’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어떤 사회를 이루는지 전체적으로 크게 내려다보는 까닭이다. 그런 그가 말한다. 되도록 멀리, 가급적 길게 비전을 세우라고. 그러면 소소한 실패나 무의미한 휴식조차도 값진 거름으로 남을 거라고. 단지 망원경을 건네받았을 뿐인데,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어렵듯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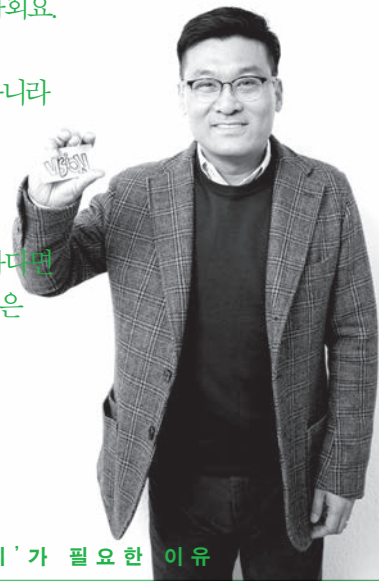
진짜  
비전이다심리학과  
허태균 교수



“패자부활전이 있는 사회가  
진정 비전 있는 사회예요.  
포기도 실패도 인생의  
값진 거름으로 남는 그런 사회요.

중요한 건 비전의 속도가 아니라  
비전의 방향이에요.

느리게 가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만 하다면  
중간 중간의 소소한 실패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 비전을 세우는 데 ‘포기’가 필요한 이유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이는 말이다.’ 포기를 싫어하는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문장이다. 그는 이 말을 아주 싫어한다. 제대로 된 비전을 갖는 데 ‘포기’는 매우 유용한 보석이기 때문이다.

“선택의 본질이 포기예요. 비슷비슷한 것 중에 무언가를 포기해야

선택을 할 수 있죠. 한국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포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컨대 다섯 살 때부터 무언가를 포기할 줄 알면 나중에 커서 자신이 했던 선택만 남아요.

이걸 포기하면 또 다른 걸 선택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약 스물다섯 살에 처음으로 포기라는 걸 하면 그 사람은 그냥 포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엄청 크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같은 학교 의대에 다니던 한 친구를 요즘도 가끔 떠올린다. 의대를 졸업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학비를 내고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던 그 친구는 시골로 내려가 의사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꿈에 부풀어 있었다. 돈 잘 버는 의사가 된다면 세상에 이름을 내는 의사가 된다는 생각은 친구의 꿈속에 없었다. ‘용기 있는 포기’가 아름다운 비전을 만든다는 걸 그 친구가 일깨워줬다.

“패자부활전이 있는 사회가 진정 비전 있는 사회예요. 포기도 실패도 인생의 값진 거름으로 남는 그런 사회요. 중요한 건 비전의 속도가 아니라 비전의 방향이에요. 느리게 가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만 하다면 중간 중간의 소소한 실패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 ‘재미’라는 이름의 비전

그는 고려대 심리학과 88학번이다. 그가 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심리학은 그리 ‘비전 있는’ 학문이 아니었다. 그의 대학 동기 중 하나는 심리학을 전공한다는 이유로 애인과 헤어진 적도 있다. 전공에 비전이 없다고 애인의 부모가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그랬던 심리학이 이제 ‘열풍’이란 단어의 주인공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런 답변을 내놓는다.

‘30년 후엔 또 무엇이 뜰지 모른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건 이미 비전이 아니다.’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실은 2지망으로 심리학과에 들어왔어요. 간절히 원한 학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1년만 다녀보자 생각했죠. 근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니 심리학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는 사회심리학자다. 심리학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일에 즐거움과 사명감을 동시에 느낀다. 사명감도 크지만 즐거움이 그보다 한 수 위다. 그것이 무엇이든, 재미가 없다면 그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재미있는 일이면 그는 한다. 자신만의 ‘미칠 거리’를 만나면, 득달같이 뛰어들어 아이같이 몰입한다. 그의 비전은 ‘재미’다. 쏘아올린 별이 거기에 있으니, 삶이 조금 어두워져도 길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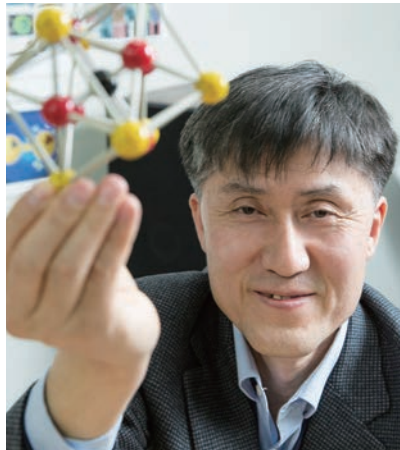
####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선택과 의사결정, 위험지각과 후회 및 판단오류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저명한 국내외 학술지에 지금까지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역서로는 2012년에 발간한 베스트셀러 ‘가끔은 제정신’, 2015년 ‘어쩌다 한국인’ 등이 있다.





2016년 제3회 교우회 학술상을 받은 이종훈 교수. 그는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 미래 100대 기술 주역', '노벨상에 근접한 한국과학자 16인'에 선정된 국내 최고의 학자다.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비전과 꿈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았다



## 신소재공학부 이종훈 교수

### 냄새를 보는 연구자, 기계에도 후각장치를

이종훈 교수는 '세라믹 화학센서'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그는 본인의 전공분야를 풍부한 사례를 들어 흥미롭게 설명한다. "시각, 촉각, 청각과 관련한 다양한 센서가 인간의 능력을 대신하거나 그보다 고도의 일을 해내죠. 하지만 오감 중 '후각'과 '미각' 센서 연구는 간단치 않아요. 다른 감각과 다르게 물리량이 쉽게 잡히지 않거든요. 3~40가지 종류의 냄새가 섞여 있고, 단순히 냄새가 좋고 나쁨을 떠나 신맛, 산미 등 애매한 표현들이 많잖아요? 소몰리에나 바리스타가 맛의 조합을 자기만의 여러 복잡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러한 모호함에 패턴을 부여하고 정량화, 표준화를 가해 후각을 대신하는 센서를 연구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 숙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폭발물 등 안전과 관련된 위험신호를 감지하는 센서까지. 그의 연구는 인공후각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그 가운데 이종훈 교수의 연구는 세계를 선도한다. 기존에 말을 수 없던 냄새를 감지할 수 있도록 감도가 정밀한 나노 구조를 설계하거나, 습기에 방해받지 않는 가스 센서 소재를 개발하는 등 한계를 계속 깨나가는 연구를 하기 때문이다.

### '절실함'이 남보다 한 발 앞서는 원동력

이러한 화려한 연구성과와는 반대로 그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큰 꿈을 꾸어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초등학생 때는 안정적인 직장인이 되고 싶었어요. 대학원도 학자가 되겠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석사 정도는 받고 취직해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석사과정을 6개월 정도 해보니 연구가 적성에 맞았던 거죠.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되었어요." 이후 이종훈 교수는 대기업 연구원이 되어 엔지니어 분야 등 다방면의 경험을 쌓았고, 이른 나이에 승진해 연구 매니저가 되었다. 하지만 관리직이 되기에 그는 아직 연구를 향한 열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가족들에게 3~4년 연구만 할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양해를 구한 후 일본에 연구원으로 가 정말 원 없이 연구만 했죠. 이후에 내가 연구에 소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떤 일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으로요."

“요즘 말로  
'덕후'라고 하죠.  
연구자에게는  
덕후 기질이 필요해요.

자발적 몰입의 단계에  
들어서는 거죠.

쓸모없는 연구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연구자들의 몰입이  
분명 세상을 바꾸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절실함을 동력으로 연구했다. 그때 몸에 밴 연구를 향한 순수한 열정이 지금까지 식지 않은 채 이어오고 있는 것. "50대 중반에는 세계 화학센서 분야의 권위 있는 잡지 <Sensors and Actuators B> 에디터가 되길 바랐어요. 그런데 47세에 에디터가 되면서 생각보다 일찍 꿈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직함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훌륭한 일을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원하는 타이틀을 얻었으니 그에 걸맞거나 상회하는 학문적 업적을 남기고 싶어요. 화학센서분야 하면 '이종훈'이라는 이름 석자가 떠오를 정도로요. 상을 받긴 못 받긴 내가 속한 동네에서 날 알아주는 것. 이것이 제 연구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그를 이끌어 온 것은 거대한 비전이나 야망보다는 연구에 관한 자발적인 몰입이었다.

“요즘 말로 '덕후'라고 하죠. 연구자에게는 덕후 기질이 필요해요. 자발적 몰입의 단계에 들어서는 거죠. 쓸모없는 연구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연구자들의 몰입이 분명 세상을 바꾸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의 즐거움을 좇아온 이종훈 교수. 큰 성과에 도취하지 않고 순수한 열정을 오랫동안 간직해온 일관성. 그가 세계적인 학자가 된 비결이었다. 🍀



전통,

글 박미경 / 사진 김선아

그 눈부신  
비전의디자인조형학부  
정종미 교수

그의 화풍은 그 자체로 '자연'이다. 한지와 모시, 삼베 같은 전통소재에 천연염료를 수십 번씩 덧입힌 작품들. 자연의 숨이, 자연의 힘이, 작품마다 오롯이 살아 있다. 그의 비전은 '자연의 색'인 한국 색채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오래 전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그는 '우리 것을 알리는 사람'이 되는 꿈을 안고 이 땅에 돌아왔다. 그 꿈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 그는 여전히 청춘이다.

## 이름

##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의 색

그 집 하늘은 정사각형이다. 네모난 마당 위로, 같은 크기의 하늘이 쌍둥이처럼 걸려 있다.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햇살은 가만히 놀다간다. 가뻐던 호흡이 저절로 느려진다. 실내엔 그의 작품들이 있다.

자연의 색과 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통유리로 건너다보이는 마당풍경과 기막힌 조화를 이룬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이곳은 작품도 선보이고 마음도 나누는 공간이다.

갤러리보다 은은하고 카페보다 훈훈한, 참으로 고운 집이다.

“지금까지 스무 번의 개인전을 열었어요. 스물한 번째 전시는 여기서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곳은 개인적인 용도의 공간이 아니에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은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색과 그림을 사랑하는 젊은 작가들도 이 공간을 통해 길러내고 싶어요.”



그는 우리 색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래도록 고민해온 작가다. 우리 선조들이 즐긴 색이 무엇인지, 그 색채가 서양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 오랫동안 홀로 연구해왔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전통색인 오방색(백, 황, 적, 청(녹), 흑)은 각기 다른 계절을 상징한다. 봄은 청색과 녹색이다. 방향으론 동쪽, 일출이나 환희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품고 있다. 인생의 봄을 '청춘'이라 부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빛의 파장을 중요시하는 서양에선 녹색과 청색을 다른 색으로 보지만, 우리는 우주의 순환체계를 담고있는 상징색이기 때문에 두 색을 같은 색으로 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인간과 우주 사이에 뗄 수 없는 원리가 있다고 믿어온 우리 선조들에겐, 색을 구분하는 것보다 색을 통해 세상과 '교감'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셈이다.

“청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않는 습성은 아직 우리 안에 있어요. 녹색 신호등을 파란불이라 부르고, 초록으로 뒤덮인 산을 푸른 산이라 부르는 게 그 사례들이죠.”

여름은 붉은색이다. 방향은 남쪽.

태양처럼 왕성한 생명력을 의미한다.

가을은 흰색이고 겨울은 검은색이다.

각각 쇠 즉 금(金)속성이 많은 서쪽과 물 즉 수(水)성이 강한 북쪽을 상징한다. 오방색은 방향과 계절은 물론 인간의 장기까지 하나로 연결한 색채개념이다. 청색은 간, 적색은 심장, 황색은 위장, 백색은 폐, 흑색은 신장을 상징한다. 간이 나쁘면 푸른색 옷을 즐겨 입거나 푸른색 음식을 즐겨 먹던 우리 선조들. 그들에게 색은 그대로 삶의 일부였다. 잊혀져버린 그 전통이 그는 못내 안타깝다. 선조들의 색채관과 재료기법을 살리고 알리는 데 많은 힘을 쏟아온 것은 그 때문이다.

“전통색은 자연색이에요. 천연의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를 혼합하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굉장히 아름다운 색이 나와요. 그게 고려 불화에 나타나는 색채감이에요. 고려 불화를 보면 자연에서 채취한 이러한 전혀 다른 성질 즉 상극의 재료를 사용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상생시키는 힘으로 전환시키죠 천 년이 넘는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그 색채를 볼 때마다 우리 옛것의 위력을 다시 한번 절감하죠. 그런 색채감을 내 그림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 생명들과 하나 되는 기쁨

벗어나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세상엔 있다. 서울대 동양화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작품 활동을 하던 그는 서른일곱 살이던 1994년, 학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뉴욕 파슨스 스쿨과 디외 도네 종이공방, 판화공방 등에서 벽화, 판화, 염색, 종이제작 등을 두루 배웠다.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은 또 하나의 교실이었다. 학교도서관은 물론 미술관과 박물관, 국회도서관 등을 집처럼 드나들며, 한국에선 볼 수 없었던 세계의 자료들을 보고 또 봤다. 우리 것의 가치와 우수성을 그 때 깨달았다. “2년 반 동안 미친 듯이 자료를 모으고 공부했어요. 돌아올 땐 비전이 바뀌더라고요. 좋은 작가가 되겠다는 꿈에 더하여 한국을 문화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꿈이 하나 더 생겼어요.”

한지의 장점에 눈을 뜬 것도 미국에서였다. 세계의 종이를 두루 접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질기고 가장 부드러운 것이 한지라는 걸 알게 됐다. 한국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새삼 관심이 갔다. 미국으로 이민 온 교포여성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한지의 물성과 한국여성의 성정이 놀랍도록 닮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종이부인〉 연작이다. 소리 없이 살다간 이 땅의 여성들을 우리 종이 위에 불러들여, 위로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일. 그 일이 어느덧 그의 삶이 됐다.



정종미 / 비람\_한지, 천, 안료, 130×190, 2003

“전통을 현대와 결합시켜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DNA안에 내재되어있는 잠재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 미술이 그런 역할을 해야하고 그런 일에 민족고대가 앞장서기를 바래요. 고려대가 한국미술의 메카가 되도록 힘을 보태고 싶어요.”

“엄마처럼 나를 키워준 할머니가 계세요. 오갈 곳 없는 할머니를 아버지가 집에 모셔와 함께 살았거든요. 그분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돌아온 분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런 분들의 삶이 내겐 중요한 화두예요.”


여성은 색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규방이란 공간에서 지수를 놓거나 보자기를 만들면서, 색의 잔치를 마음껏 누렸던 조선 여성들. 그들이야말로 생활 속의 예술가라고 그는 생각한다.

한지뿐 아니라 모시며 삼베 같은 전통소재에서도 그가 빚어내는 자연색은 빛이 난다.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물질은 서로 늘 그렇듯 통하게 마련이다. 그토록 아름다운 결과물을 얻기까지 그가 감수하는 노동은 실로 엄청나다. 한지를 염색해 화폭에 붙인 뒤 천연의 염료와 천연안료를 칠하고 말리기를 20여 차례, 염료와 콩즙을 20번 정도 덧발라야 겨우 그림의 바탕이 만들어진다. 그토록 더디고 고된 과정임에도 그가 자연재료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작업 자체가 주는 정신적 위안 때문이다. 그는 동양의 예술을 ‘생명과 하나 되는 과정’으로 표현한다. 종이도 안료도 염료도 모두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들과 만나서 하나 되는 과정이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한다.

“내리 10시간을 작업해도 시간이 후딱 지나간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마음이 편하다고 말하는 건, 몰입으로 얻은 내 행복이 전달됐기 때문일 거예요.”

전통재료를 부활시켜온 사람답게, 예술과 과학의 ‘협업’에 그는 매우 적극적이다. 2011년 고려대학교 부설기관인 색채연구소를 설립해 한국색채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해온 그는 현재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님을 비롯해 연구교수 여러분과 ‘전통안료 대체용 발색물질’을 개발 중이며 한국색채의 정체성 마련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확립을 위해 노력중이다. 예술이야말로 다른 학문과 더 많이 손을 잡고 교류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어떤 분야든, 예술이 바탕에 깔려있으면 실로 엄청난 힘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할 때가 되었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국가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전통을 현대와 결합시켜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DNA안에 내재되어있는 잠재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 미술이 그런 역할을 해야하고 그런 일에 민족고대가 앞장서기를 바래요. 고려대가 한국미술의 메카가 되도록 힘을 보태고 싶어요.”

아프게 살다간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하여, 전통미술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위해 그리고 힘차게 발돋움할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의 미래를 위해 그는 힘을 보태려한다. 이보다 아름다운 ‘비전’을 본 적이 없다. 





# KU the future

고려대가  
제시하는  
미래대학의  
길,



“실패를 두려워해서  
변화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

고려대는 지난 해 제19대 염재호 총장 취임 후,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고려대학교’, ‘대학의 표준이 되는 고려대학교’, ‘인류를 위해 실천하는 고려대학교’를 목표로 ‘KU-The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다방면에 걸쳐 개혁을 시행해왔다.

●시험감독-출석확인-상대평가 자율화를 시작한 이른바 ‘3無정책’ ●성적장학금 대신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Need-based 장학제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추천전형 확대, 논술전형 폐지 등 고려대가 실시한 파격적인 개혁은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고 타 대학에 변화의 영감을 주었다.

올 한 해는 개혁하는 지성을 육성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염재호 총장은 신년사에서 “실패를 두려워해서 변화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라고 말하며 개혁에 따른 변화로 인해 많은 불편과 고충이 따르겠지만 인내와 변화의 의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전했다.



“우리의 비전은 꿈이 아닌  
대학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엄정한 과정”

2016년 고려대는 대학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되찾고, 개혁하는 지성을 위한 고대만의 교육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 중 하나로 집중적인 외국어 교육과 현지 대학에서의 교육, 문화 체험을 통해 제2외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학생이 유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고, 개혁하는 리더가 되기 위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도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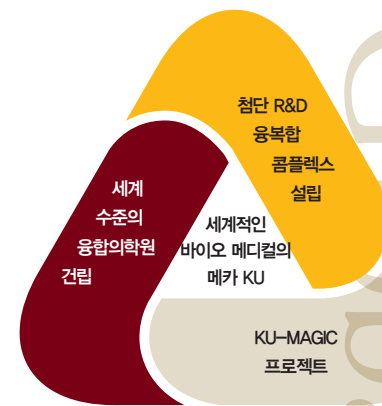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 가능한 드림팩토리

이와 더불어 청년창업센터인 ‘드림팩토리(Dream Factory)’를 올해 안에 운영할 계획이다. 미디어관과 정경관 사이의 부지에 컨테이너 하우스 형태로 만들어질 드림팩토리는 24시간 개방되어 학생들과 교원들이 어울려 창업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더 많은 학생이 대학 공간에 머물며 학문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레지던셜 칼리지(기숙형 대학)도 추진되어 학생들이 20~30년 뒤에는 글로벌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육의 방식과 내용이 새롭게 꾸며질 것이다. 토론식 수업과 세미나를 위한 전용 공간도 구상 중에 있다. 현재 강당 옆자리에 ‘SK미래관’을 건립하여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생과 교원이 진정한 교육과 학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자들의 꿈을 현실로,  
더 나은 연구 환경 조성”**

또한 인류 행복에 기여할 대형 연구 기획을 독려하기 위해, 연구팀의 규모에 따라 연간 1억 원 이상의 연구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세계 최초로 나노기술을 접목한 항암면역세포치료제 개발로 새로운 융합학문 분야를 개척한 이경미 의과대학 교수의 목표는 ‘암을 감기처럼 치료할 수 있는 날을 이끄는 것’이다. 고려대는 이 같은 연구자들의 꿈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고려대를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의 메카로 성장시키고,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어갈 KU-MAGIC 프로젝트도 진행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첨단 R&D 융복합 콤플렉스를 설립하고, 세계 수준의 융합의학원을 건립하며,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기업들과 연구협력을 이어갈 KU-MAGIC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러스 및 감염병 정복 ●미래형 의료기기 개발 ●개인 맞춤형 의료 ●스마트 에이징 ●빅데이터를 통한 질병관리 등 다섯 가지 중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세계 어디를 상대로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글로벌 거점화”**

보다 적극적인 국제화 정책도 추진될 것이다. 북유럽 주요대학들과 동아시아 주요대학들 간 교육 및 연구의 실질적 협력을 촉진하는 컨소시엄이 고려대학교 주도로 추진된다. 라틴 아메리카의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이미 시작되었다. 미주한인,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등 우리의 뿌리를 찾아 고대로 유학 오고자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KU Global Beijing Center, KU Global Silicon Valley Center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를 유연학기제와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국제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SK미래관, 민주광장 지하개발, 미래공학관 등  
첨단 캠퍼스 환경으로 한번 더 전진”**

아울러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도 시작될 것이다. SK미래관, 수당 Faculty House, 행정관 신축이 착공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민주광장 지하개발과 정경관 증축 및 홍보관 부지에 대형 강의동 신축도 추진되고 있다. 자연계 캠퍼스에도 미래공학관 완공과 함께 자연계 교양관 신축, 제2공학관 철거에 따른 자연계 중앙광장 신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의료원의 최첨단융복합의료센터 건설은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를 선도해 가는 고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을 한 해 고대는 갈 길이 바쁘다. 또한 그 길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도 크다. 그러나 교육 구국의 역사와 4.18 의거, 민주화, 산업화의 주역으로서 고려대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해 왔듯, 혁신과 개혁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또 한번 국가의 희망을 제시하는 등불이 되고자 하는 고대의 항해는 이미 시작되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도전 앞에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순 없다’는 염세호 총장의 한마디가 많은 고대인의 가슴에 닿길 바란다. 





# book 20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김정운(심리81)  
21세기북스

하루하루 숨 가쁜 일상, 잠이라도 공백이 생기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뭔가 자꾸 '더 열심히' 해야만 할 것 같다. 한 번씩 돌아본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산다는 것은 과연 '바쁘게'만 사는 삶일까? 관계에 부대끼며, 뜻 모를 용기를 스스로 세뇌하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에게 김정운은 말한다.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고.



숨,  
나와 마주 서는 순간  
서명숙(교육76)  
북하우스

제주올레길을 내려 제주의 숨은 비경과 평화로운 제주의 속살을 온 세상에 알린 제주올레 이사장 서명숙이 삶의 진정한 고수, 제주해녀를 통해 용기 있게 인생을 헤쳐나가는 법을 담았다. 인류 최초의 전문직 여성인 해녀들의 모순적이면서도 강렬한 삶을 저자 특유의 맛깔 나는 문체로 때로는 유쾌한 목소리로 때로는 가슴 찡한 울림으로 재현하였다.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김혜남(의학77)  
갤리온

《서른 살이 심리학에게 묻다》의 작가 김혜남이 2015년 7년 만에 펴낸 책으로 저자 스스로가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15년간 파킨슨병을 앓으며 깨달은 삶의 비밀을 고스란히 담은 책이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누구보다 유쾌한 심리학자 김혜남이 스스로를 닦달하며 인생을 숙제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비밀이 담겨있다.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길,  
함께하면 좋을 책



여덟  
단어  
박웅현(신문방송81)  
북하우스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쯤 마주쳤을 여덟 가지 가치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만난 사람들, 그리고 책과 그림, 음악 등을 예로 들며 함께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왜 삶의 기준을 내 안에 두어야 하는지, 동의되지 않는 권위에 굴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의 행복을 유보시키지 않고 지금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내야 하는지 등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의 이야기는 새로운 질문이 되어 우리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라면을  
끓이며  
김훈(영어영문66)  
문학동네

《라면을 끓이며》는 매 해 36억 개, 1인당 74.1개씩의 라면을 먹으며 살아가는 평균 한국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자, '거리에서 싸고, 간단히, 혼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이다. 김훈 문장의 힘은 버리고 버리는 데서 온다. 이 책은 김훈이 축적해온 삶 위에, 가차 없이 버리고 버린 그의 문장의 힘이 더해져, '김훈 산문의 정수'를 읽는 희열과 감동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산문집이다.



행복의  
충격  
김화영 불어불문과 명예교수  
문학동네

《알베르 카뮈 전집》, 《어린 왕자》등의 다양한 작품을 100여권 이상 번역해온 문학평론가이자 번역가인 김화영 교수의 생애 첫 책이자 출간된 이후 40년이 넘도록 한번도 절판되지 않고 꾸준히 사랑을 받는 책이다. 이 책은 1969년 처음으로 지중해 연안의 땅에 발 디딘, 한 젊은 학자가 느낀 '행복의 충격'을 담았다.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들고, “행복의 외침으로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이 열린 풍경, 아무것도 감춘 것 없는 전라의 풍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이의 거침없는 '청춘의 기록'이다.

# PARAGON

PARAGON 섹션은 고대의 비전을 담은 섹션입니다.  
민족의 대학으로서 대한민국 대학의 길을 제시해온 고려대가  
이제 미래의 대학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미래의 대학을 위한 고대의 혁신과 도전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와 실행을 전합니다.

vision & key





자율·신뢰·  
책임을  
강조하는

3無 정책은 출석부와 상대평가, 시험감독 세 가지를 없애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키워내겠다는 계획이다.  
박만섭 교무처장은 3무 정책이 시행된 지난 첫 학기를 성공적인 출발로 평가했다.

박만섭  
교무처장

3무無  
정책



여태껏 많은 대학이 ‘연구’를 강조해왔다.  
연구의 강조는 곧 대학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뜻이고, 상대적으로 학부교육에  
소홀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염재호 총장은  
대학의 역할로 ‘연구’도 중요하지만 ‘교육’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해 ‘3無 정책’을  
시행했다. 박만섭 교무처장 역시 그러한 염  
총장의 철학에 전적인 공감을 표했다.

“현재 학부에서 시행하는 출석부, 상대평가,  
시험감독 제도는 구시대적인 것이죠.  
학교가 또는 교수가 학생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나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無 정책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자율·신뢰·책임’이에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학교는  
그 자율을 신뢰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경제학과 교수이기도 한 박만섭 교무처장은  
3無 정책 시행 이전에도 출석부를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항상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는 출석을  
안 부른다’고 공언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너희는 성인이다. 둘째, 너희가  
자발적으로 수업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다. 아마 수업이 좋다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올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는 없을  
테고요.”



“이와 다른 방향의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자율’과 ‘양심’이  
학생에게 요구된다면,  
시험 출제자는  
커닝이 가능한 문제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픈북’을 하더라도  
학생 스스로 생각을 해야만  
답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결국 이것이  
대학교육의 참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석자율화’는 출석 부르는 시간이  
고스란히 수업시간으로 적립된다는 이점도  
있다. 상대평가를 없애고 절대평가를 실시한  
것 역시 교수와 학생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함이다. 일정한 점수 영역 안에 학생들을  
끼워 넣는 것은 적절한 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힘들다.  
“만약 교수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학생들이 많음에도 상대평가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은 교수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으며, 학생들 역시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죠. 물론 강의마다  
명확한 성적평가의 기준을 설정해 성적 왜곡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감독 시험’의 중요한 가치는 역시 ‘자율’과  
‘신뢰’이다. 본인의 양심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 맡기지 말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다른 방향의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자율’과 ‘양심’이 학생에게 요구된다면, 시험  
출제자는 커닝이 가능한 문제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픈북’을 하더라도 학생  
스스로 생각을 해야만 답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결국 이것이 대학교육의 참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3無 정책’은 희망하는 교수의 신청을 받아  
작년 2학기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가장  
성공적이었던 결과는 ‘절대평가’였다.  
개설된 과목의 60% 정도가 시행되었으며,  
학점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었으나 오히려  
이전 세 개 학기 평균 점수보다 지난 학기  
평점이 소폭 낮아졌다. 평가 기준이 확실하고  
무분별하게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반면 ‘출석 자율화’는 6.5%,  
‘무감독 시험’은 3.5%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아직은 교수님, 학생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험출제  
같은 경우 많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제도정비, 또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이후에는 3무 정책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반대로 3무 정책이  
기본이며, 이 정책대로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해야 하는 ‘3유(有) 정책’으로 자리 잡아나갈  
예정입니다.”  
박만섭 교무처장은 머지않아 ‘3無 정책’이  
정착되면 더는 중·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다운 생각과 행동을 하는 즉,  
‘개척하는 지성’들이 고려대학교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 확신했다. 🌸



“오늘날 나는  
두 가지 예를 들어  
명예규율을 선언한다.  
하나는 삼각법 Trigonometry 이고,  
다른 하나는 정직이다.

나는 당신이  
대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두 가지 모두 통과하길 바란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 둘 중  
하나를 실패해야 한다면,  
나는 그것이 삼각법이기를 바란다.

오늘날 멋진 사람들 중 일부는  
삼각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직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중  
좋은 사람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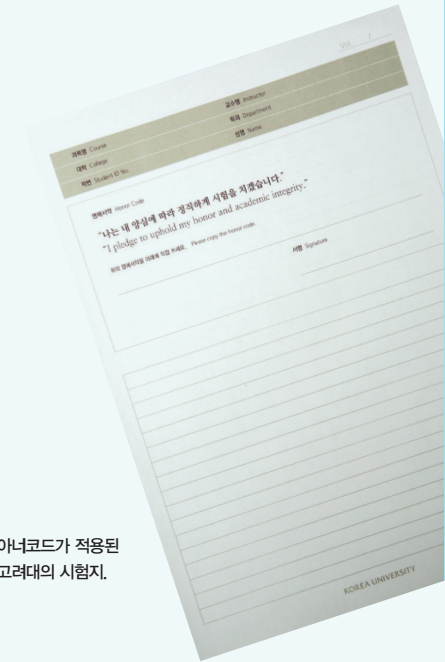
밴더빌트 대학교 건물 현판



‘양심앞에  
떴떴한  
우리를  
위하여’  
아너  
코드

2007년 5월 미국 듀크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수강하던 학생 9명이 부정행위로 퇴학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생들이 시험 대신 제출한 과제물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돼 34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이었다. 이 중 과제물을 배긴 것으로 관정돼 중징계에 해당하는 퇴교 조치를 받은 9명은 모두 아시아계 유학생이었다. 대학이 이 같은 극한 조치를 내린 것은 아너코드(Honor Code)를 위반했기 때문이었다. 듀크 경영대학원은 입학생에게 아너코드 책자를 전달하고 서명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거짓말, 부정행위(cheating), 절도, 리포트 부정 등을 아너코드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너코드는 1840년 미국 버지니아대에서 처음 시작됐고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프린스턴대, 캘리포니아공대 등이 채택하고 있다. 감독관 없이 시험을 치르고 학생들에게 아너코드를 어기지 않았다는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시 정학, 퇴학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는 ‘생도는 거짓말, 부정행위,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는다(A cadet will not lie, cheat, steal or tolerate those who do)’라는 글귀를 거대한 돌에 새겨 그들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너코드를 학생들을 옴아매는 규칙이 아니라 스스로 정직을 선택하게 하는 문화로 여긴다고 한다. 물론 미국은 어릴 때부터 표절, 커닝 등을 진리 추구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약속을 철칙으로 여기고, 처벌보다 불명예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한다. 아너코드를 통하여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대학의 경우, 생활 전반에 대한 Honor Code를 설정하고 별도 홈페이지 및 위원회(Honor Council)를 두는 등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5년 ‘3無 정책’으로 무감독 시험제를 도입한 고려대. ‘제재’보다 ‘자율’이 승리할 수 있다는 지성인의 참모습을 누구보다 훌륭하게 몸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스탠포드의 아너코드

- ◎ 시험에 관한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수업 과제, 리포트, 채점 기준에 쓰이는 어떠한 일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 ◎ 학생들은 honor code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참고하며, honor code의 정신과 의미를 지지하여야 한다.
- ◎ 교수는 시험감독이나 위에서 언급한 부정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비합리적인 주의를 피하고 학생들의 명예를 고취시켜야 한다. 또한, 교수는 honor code를 위반할 수 있는 절차들을 피해야 한다.
- ◎ 교수는 학문적 성과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는 동시에, 학생들과 교수는 정직한 학문에 관한 최적의 조건을 이해 노력해야 한다.

다음의 예는 honor code를 위반 한 것으로 간주한다.

- ◎ 타인의 시험지를 복사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시험지를 복사하도록 허락
- ◎ 허락하지 않은 협업
- ◎ 표절
- ◎ 교수가 허락 없이 퀴즈나 시험을 수정하거나 재제출
- ◎ Take home 시험에서 허락 없는 도움을 주거나 받음
- ◎ 타인의 업적을 자신의 업적으로 바꿈





## 111주년 맞은 고려대의 비전 선포, KU The Future 2016 열려

고려대는 개교 111주년을 맞아 보다 내실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미래고대, 세계고대의 비전을 공유하는 'KU-The Future 2016' 비전 선포식을 1월 11일 인촌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염 총장이 취임한 이후 강조해온 '개혁하는 지성'을 키우기 위한 대략적인 계획이 발표됐다.

특히 5대 핵심사업으로 △미래형 입학제도 개편(교추천전형 확대 및 논술전형 폐지) △성적장학금 폐지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연구개발 콤플렉스(Complex) △연구혁신 프로그램 확대 △KU-Magic 기금 확대 등을 제시했다. 염재호 총장은 "올해는 학령 인구 감소, 교육 규



제 강화 등으로 대학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고려대는 세계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열기와 투지로 이 위기를 이겨낼 것"이라며 새로운 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주선회 고려대 교우회장은 축사에서 "1월 11일에 진행된 개교 111주년 비전 선포식은 고려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행사"라며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 "아무리 총장이 큰 뜻을 품어도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추진력을 잃게 된다. 교우들과 학교 구성원들이 염 총장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독려했다.



##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양국 대표 사립대 축구 친선전 열려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명문 사립대학 축구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선 교류전을 가졌다. 2015 한국-일본 4개 대학 축구부 국제 친선 경기가 11월 29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니시가오카 축구 경기장에서 열렸다.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 대학생 축구선수들 간의 친선을 다지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한국의 고려대, 연세대 선수들과 일본의 와세다대, 게이오대 선수들이 참가했다. 매년 고려대는 와세다대학교, 연세대는 게이오대학교와 스포츠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축구전은 평소 교류가 있어왔던 고려대-와세다대 연합팀과 연세대-게이오대 연합팀으로 나뉘어 경기가 치러졌다. 경기는 고려대 안은산 선수의 선취골(전반 17분)과 후반전 고려대 장성재 선수(후반 44분)의 추가 득점으로 최종 스코어 2대 0으로 고려대-와세다대 연합팀이 승리했다.



##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콘서트 열려

고려대는 12월 21일 저녁 7시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재학생 및 학부모 초청 감사 콘서트'를 개최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이번 콘서트에는 학부모와 학생들 90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공연은 금난새 지휘자와 뉴월드 챔버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공연으로 그리그의 프롬 홀버그 타임(From Holberg's Time),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등이 연주됐다. 또한 바이올리니스트 박진희, 클라리네티스트 백양지가 협연을 펼쳐 연말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음악회로 꾸며졌다. 이날 부모님을 모시고 콘서트에 온 박인영 교우는 "부모님까지 초대 해주어서 감사하다. 호도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본교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온 임선희(54)씨는 "너무 좋았다. 지휘자의 설명까지 곁들여져서 더 재미있게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콘서트가 끝난 후에는 단과대학별로 다과회가 마련되어 보직교수·학생·학부모들간 대화의 시간이 이어졌다.

## 연세대 정갑영 총장 명예 교육학박사 학위 수여

고려대는 1월 6일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정갑영 연세대 총장 명예 교육학박사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고려대는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교육자로서 교육과 학문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고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학회 활동과 사회 활동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현실에 반영한 공로로 명예 교육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오늘 명예박사학위는 지난 30여 년간 경제학자로서 그리고 교육행정가로 지내온 시간들에 대한 격려의 뜻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표창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대학에 봉직하면서 제자들과 더없이 즐거운 시간이 많았고 때로는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특별히 연세 제3의 창학을 주창하며 행정책임자로서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 함께 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고려와 연세가 전통적인 협력과 우의를 다지며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양교가 힘을 합쳐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경영대학,  
‘제2회 청소년 멘토링 데이’  
개최

경영대학은 1월 30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제2회 청소년 멘토링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영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전국의 고등학생 63명과 경영대학 재학생들이 봉사 멘토로 참여했다. 이번 멘토링 데이는 차세대 경영인을 꿈꾸는 고등학생을 위해 경영대학이 기획한 행사다. 멘토링 데이 행사는 경영대학 김우찬 교수의 경영학 특강을 비롯해 △고려대와 경영대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캠퍼스 투어’ △재학생 멘토들과 함께 하는 ‘경영학 실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경영대학은 앞으로도 경영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을 위해 방학마다 ‘청소년 멘토링 데이’와 ‘정기 캠퍼스 투어’를 진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경영학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학업계획과 진로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5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본교 학생들 대거 수상 쾌거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본교 학생이 대거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고려대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는 이번 대회를 위해 6개월에 걸쳐 교육을 지원한 결과 많은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 사전출제 분야에 맞는 3개 전담특허사무소 대표변리사를 매칭하여 그룹 스터디 형식으로 문제에 대한 기술동향 및 연구개발 동향 분석, 검색식 작성 방법, 특허성 판단 및 회피설계방안 도출 등을 연마할 수 있게 지원했다. 그 결과, 선행기술조사분야에서 장려상 4팀, 특허전략수립분야에서 특허청장상 2팀,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이 선정됐다.



사이버국방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해커팀,  
SECCON CTF 우승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학생들로 이뤄진 해커팀이 새해들어 처음 열린 국제해킹 대회 세콘(SECCON) CTF에서 우승했다. 사이버국방학과 15학번 임0원, 진0휘 학생과 이정훈 삼성SDS 연구원 등으로 이뤄진 사이코키네시스(Cykorkinesis)팀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SECCON CTF에서 우수한 실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사이코키네시스팀은 초반부터 압도적 실력을 나타냈다. 이들은 일본, 러시아, 대만, 태국 등 18개팀과 경합을 벌여 1등을 차지했다. 2016년 열린 첫번째 대회를 우승으로 시작한 사이버 인재들의 눈부신 활약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대학, 국내 유일 CEMS Global Alliance 가입 쾌거



세계 명문 비즈니스 스쿨 연합인 CEMS Global Alliance는 11월 27일(금)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CEMS Global Alliance에는 한 나라에서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로 인정받은 1개교만 영구 가입할 수 있다. CEMS Global Alliance는 가입과 간의 석사 과정 학생 및 인턴십 교류에 중점을 둔다. 각 회원교들은 산학협력을 맺고 있는 기업과 공동으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를 다른 회원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제 교류를 실시하게 된다. CEMS Global Alliance를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매킨지컴퍼니(McKinsey & Company) △구글(Google) △로레알(L’Oreal) 등이 있다. 고려대 경영대학은 CEMS 가입과 동시에 국제경영학석사(MIM)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던 석사과정(M.S.)을 실무 융합형 교육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CEMS MIM과정의 학생들은 재학기간 중 최대 2학기까지 세계 각국의 회원교에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로써 고려대 경영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석사과정생들은 진로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됐다. 고려대 경영대학은 회원 자격을 얻기 위해 현재 현대자동차와 인턴십 협력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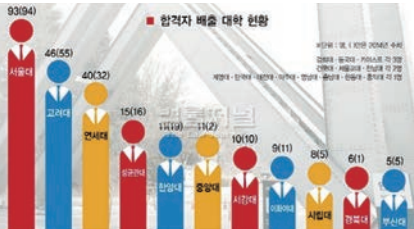
디스플레이 분야 미래지향적 성장위해  
산-학이 뭉쳤다

고려대는 12월 1일 ‘LG디스플레이-고려대학교 산학협력센터’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고려대 아산이학관 내에 산학협력센터 개소를 위한 첫 시작을 알렸다. 고려대와 LG디스플레이는 산학협력센터 설립을 통하여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의 미래지향적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연구소와 학교 연구실이 모여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축, 교육-연구-실용화 분야가 소통하는 산학협동연구의 장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LG디스플레이-고려대학교 산학협력센터’를 허브로 하여 신규 산학협력과제 공동 발굴, 애로기술 해결, 국내외 디스플레이 소재학문 기술 관련 네트워크 구축, 디스플레이 분야의 고급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2015 행정고시 최종합격자 사립대 1위

2015년 행정고시(5급 공채-행정) 최종합격자 중 고려대 출신이 사립대 중 1위를 차지했다. 고시 전문 매체 법률저널이 2015년 행정고시 최종합격자 280명 가운데 277명의 신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려대는 46명(16.6%)으로 지난해(18.5%, 55명)보다 약 2%포인트 감소했지만 굳건히 서울대에 이은 2위 자리를 지켰다. 본교는 2010년부터 6년 연속 행정고시 최종합격자 사립대 1위를 지키고 있다.





# BK21플러스사업 중간평가 22개 사업단 선정, 국내 2위·사립대 1위

고려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BK21 플러스사업 중간평가 예비결과에서 22개 사업단이 예비 선정되어 국내 2위, 사립대 1위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BK21 플러스 사업 중간평가에서 기존 사업단(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상위 50% 사업단(팀)(277개)을 선정하고, 하위 50% 사업단(팀)과 신규 신청 사업단(팀)간 경쟁을 통해 재선정(269개)하여 예비 선정 사업단(팀)으로 총 546개를 결정했다. 고려대는 이 가운데 자연과학 5개, 공학 6개, 의학학 1개, 농생명수 산해양 1개, 인문학 3개, 사회과학 3개, 인문사회융복합 1개, 글로벌인재양성형 1개, 지역 1개 등 총 22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이밖에도 소규모 팀단위 지원사업인 사업팀 분야에서도 10개 팀이 선정되면서 중간평가 대부분의 분야에서 규모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성과를 냈다.

선정결과를 크게 계열로 나누어 보면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7개 사업단 5개 사업팀,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13개 사업단 5개팀, 글로벌 분야에서는 2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각 분야가 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중간 평가에서 1개 사업단 3개 사업팀이 신규 진입했는데, 그 중에서 수학과와 간호학과는 BK21 사업에 처음으로 진입하여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BK21 플러스 사업은 창조경제를 이끌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부터 7년간 매년 2,697억 원을 투자, 매년 과학기술분야 1만 3,000명, 인문사회분야 2,500명 등 석·박사급 인재 1만 5,500 여명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6년 1월 각 대학의 현장점검을 통하여 2월 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간 평가에서 최종 선정되면 기존 사업단은 2020년까지 사업비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며, 신규로 선정된 사업단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 신규 진입 사업단(팀)
- 
- 수학과
- BK21플러스 고려대학교
- 수리과학사업단
- 간호학과
-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를 위한
- KU Health Case Manager 인재양성
- 행정학과
- 뉴노멀시대 신공공성 교육, 연구
- 경제통계학과
- 국가통계 및 계량분석
- 고급전문인력양성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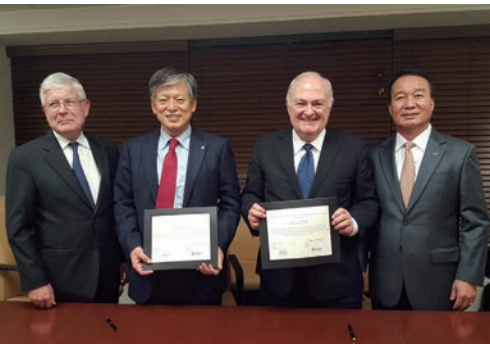


고려대 실리콘밸리 글로벌센터 현판앞에서. 왼쪽부터 김수원 연구부총장, 염재호 총장, 나창엽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장.

## 미 대륙을 거점으로 IT 전문가 키운다 ‘고려대 실리콘밸리 글로벌센터’ 개소

### KU Global Center Silicon Valley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뜻을 같이한 양교 총장.



고려대가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 양성의 획기적 시도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고려대는 미국 현지시간 12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에 위치한 KOTRA 실리콘밸리무역관에 IT 전문가와 청년사업가 양성을 위한 ‘고려대 실리콘밸리 글로벌센터(KU Global Center Silicon Valley)’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염재호 고려대 총장, 김수원 연구부총장, 나창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장 및 현지 고려대 교우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설립을 통해 기대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IT 인재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IT분야를 수학하는 고려대 학생들의 해외 인턴십의 기회가 넓어지는것은 물론 실리콘밸리 기업들과의 공동 프로젝트·교육·훈련 장소로의 활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교육 뿐 아니라 창업에 서도 가능성은 무궁하다. 현재 학생창업의 대부분은 국내 창업에 머물고 있으나 고려대 실리콘밸리 글로벌센터를 통해 기존 아이템의 글로벌화, 인력 확보, 미국 시장 조사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창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열리고 있는 전국 창업경진대회의 범위를 확장하여 현지 대학(원)생을 포함한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도 개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 불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인과의 멘토링 등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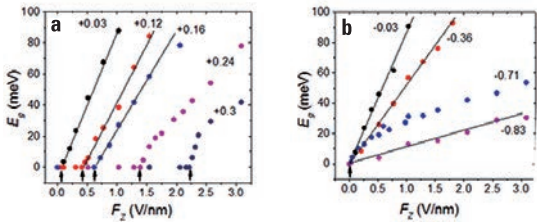
미 대륙의 서부에 ‘고려대 실리콘밸리 글로벌센터’개소를 함과 동시에 동부에도 IT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센터를 설립한다. 미국 행정의 중심이자 투자의 중심인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워싱턴대학과 고려대 글로벌센터 설립에 관한 의견을 확인함으로써 ‘KU Global Center Washington D.C’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미국 내 글로벌 센터들의 개소 및 설립은 고려대가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국제화 프로그램의 일부로, 고려대는 해외 거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세계 각 지역과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 육성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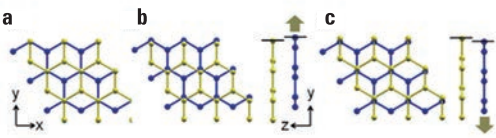
이철의 교수팀,  
그래핀 활용한 고효율 트랜지스터 개발  
길 열어

이과대학 물리학과 이철의 교수팀이 외부 전기장에 의해 유발된 이층 그래핀의 반도체 특성이 층간 어긋남의 방향에 따라 크게 바뀜을 규명하여 이를 이용한 트랜지스터 개발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 그래핀은 열적, 전기적 특성이 뛰어나고 강철보다 단단하며 거의 투명하여 실리콘을 대체할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지만 전기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밴드갭이 없어 그 동안 전자 소자로 개발이 어려웠다. 이철의 교수팀은 두 겹의 그래핀으로 이루어진 물질인 ‘이층 그래핀’이 전기장을 이용해 밴드갭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그 원인에 대해 탐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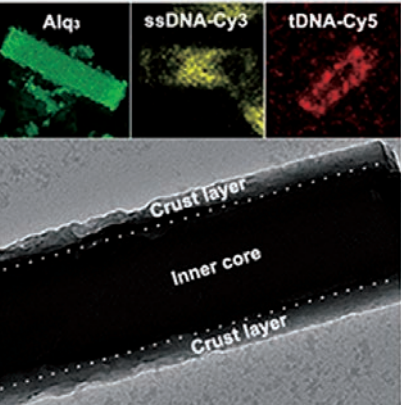
연구 결과, 이층 그래핀의 한 층을 다른 한 층에 대해 수평 방향으로 살짝 어긋나게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어긋나는가에 따라 밴드갭을 발생시키는 전기장이 0이 되기도 하고 매우 큰 값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연구성과는 기존의 실리콘보다 전자 전달 속도는 10배 이상 빠르고 훨씬 더 미세한 공정이 가능한 그래핀의 전자 소자 적용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 초소형 고효율 트랜지스터의 개발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장에 의해 유발된 밴드갭은 층간 어긋남에 극히 민감하다. 밴드갭  $E_g$ 를 수직 전기장  $F_z$ 의 함수로 보인 그림. 그림의 숫자는  $y$ -축 방향으로 발생한 층간 어긋남의 크기값이 생성되는 최소 전기장 (임계전기장)을 표시. (a) 층간 어긋남이  $+y$  방향으로 발생할 때, 층간 어긋남이 증가하면 임계전기장도 증가한다. (b) 층간 어긋남이  $-y$  방향으로 발생할 때, 층간 어긋남과 무관하게 임계전기장은 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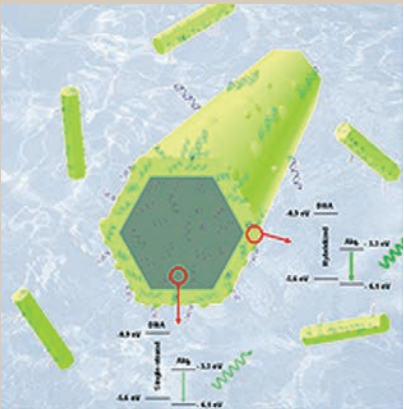
이층 그래핀의 구조와 층간 어긋남. (a) AB-적층된 안정한 이층 그래핀의 구조. 그래핀 평면에 수직인  $z$ -축 방향으로 본 그림.  $y$ -축이 안쳐어 방향에 해당한다. 파란색과 노란색의 구는 각각 아래층과 위층의 탄소원자에 대응한다. (b)와 c)  $y$ -축 방향으로 발생한 층간 어긋남을 보여준다.



안동준 교수팀,  
생체분자 검출기능  
바이오-OLED소재  
세계 최초 개발

녹색 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재(Alq3)와 단일가닥 프로브 DNA(ssDNA) 복합체가 타겟DNA와 생물특이 반응을 일으켰을 때에 해당하는 각각의 분포를 보여주는 이미지. Inner core는 유기발광소재와 ssDNA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며, 생물특이 반응은 주로 나노두께의 겹겹질에서 일어나 Crust layer를 형성함. 생물특이 반응이 일어난 후 DNA-DNA이중나선 구조가 형성된 Crust층에서만 더 강한 발광세기를 유발하게 됨.

고려대 KU-KIST 융합대학원 안동준 교수 연구팀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로 생체분자의 상호작용을 검출하는 융합기술을 최초로 규명했다. 안동준 교수 연구팀은 특이적 인식 기능과 동시에 증폭된 발광효과를 보유한 “바이오-LED 입자”에 대한 연구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미래융합파이어니어 및 중견연구자 도약연구사업 등을 통해 수행했으며, 연구결과는 복합 자연과학분야의 권위있는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판 2016년 1월 4일자에 게재됐다.



바이오-OLED 입자에 생물특이 반응이 일어났을 때 발광현상이 증가하는 것을 과학적 원리를 통하여 설명한 모식도. 유기발광다이오드 물질층의 하나인 Alq3는 2.8eV(HOMO준위: -6.1eV, LUMO준위: -3.3eV)의 Band gap에 해당하는 녹색영역의 빛을 방출하는 성질이 있으며, 이는 바이오-OLED 소재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됨.

# KU-MAGIC

Personalized Medicine

Medical Devices

Big Data to Wellness Service

Smart Ag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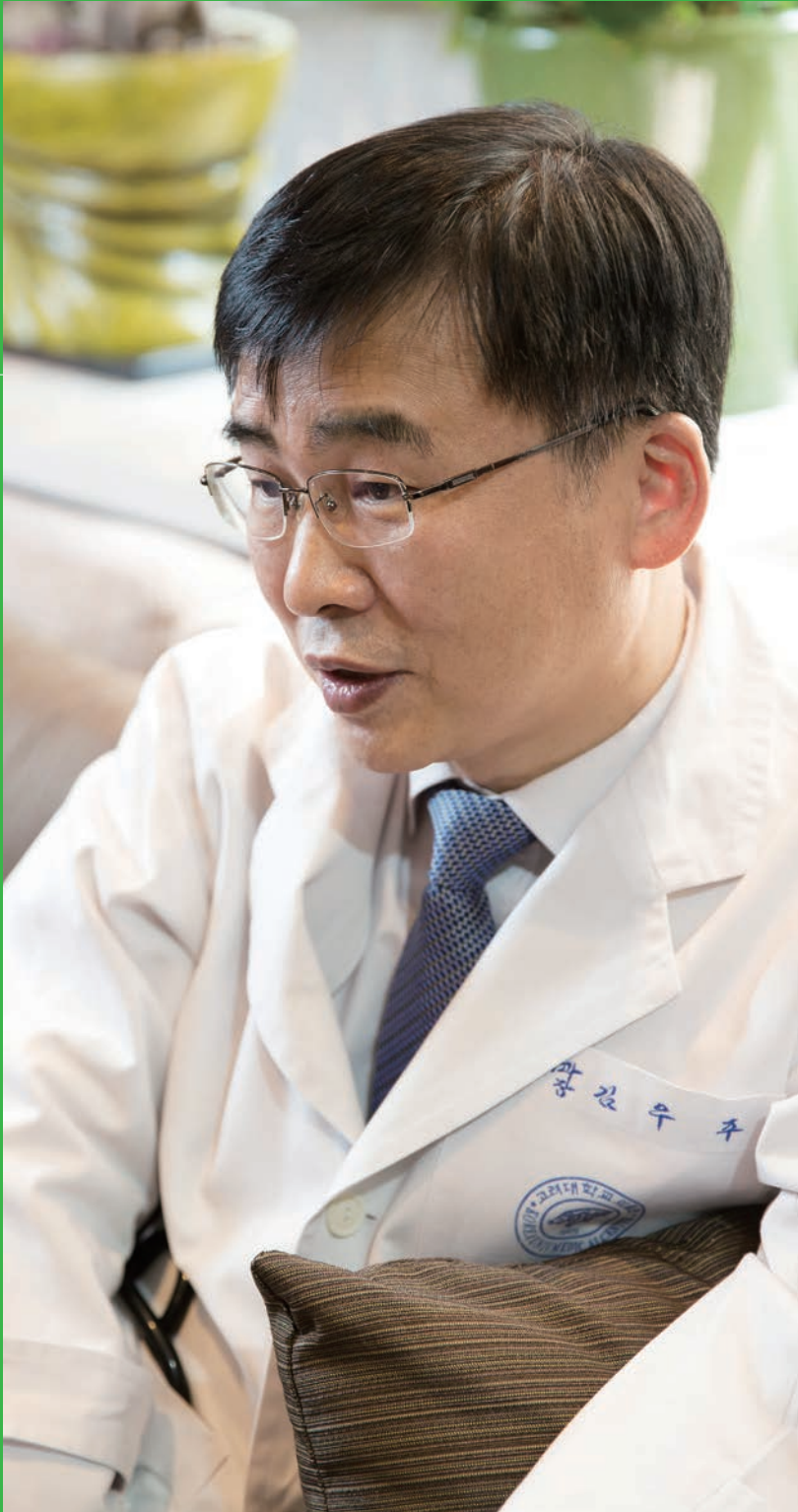
Virus and Infectious Diseases

for  
medical humanism



##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 신종 감염병을 막아내는 KU-MAGIC만의 방법



대학의 바이오 의료 연구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KU-MAGIC(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 5개의 연구과제 중 '바이러스 및 감염병 분야'는 신종 감염병이 출몰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활약해 온 김우주 교수의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다. 앞으로 'KU-MAGIC'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계획을 들어보았다.

메르스의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다시금 위기가 고조 되고 있다. 김우주 교수는 국민이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백신이나 치료제의 부재를 꼽았다.

“확실한 예방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더욱 두려운 것이죠. 지금으로선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희박하지만, 항상 메르스의 데자뮬이 있기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KU-MAGIC에서는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키트 사업화에 힘을 쓸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치료제와 백신은 제약회사가 개발하는 게 보편적이었으나 KU-MAGIC에서는 의사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의사가 환자를 보는 와중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연구소나 백신 회사, 정부와 함께 공동개발을 하는 거죠. 소아마비나 홍역 등 잘 알려진 백신들이 이러한 모델로 개발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KU-MAGIC에서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의사중심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

'바이러스 및 감염병 분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多)학제, 다(多)기관 체제라는 것이다.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장으로서 매년 115억 과제를 6년째 수행하면서 많은 융합연구를 해온 김우주 교수. 특히 SK케미칼과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세계 연구자간 네트워킹과 소통만이 세계적 바이러스 공포 이겨낼 수 있어”

“이제 혼자 하는 연구는 없어요. 감염병, 미생물, 약학 등의 전문가들과 병원, 대학, 연구소, 질병관리본부 등 여러 기관이 융합해야만 의료계의 진보가 가능하죠. 플레밍 시대처럼 우연에 의한 의학적 발견을 기대할 수 없고, 하나의 영웅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느 때보다 여러 주체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과 노후가 중요할 것입니다.”

김우주 교수는 마지막으로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를 꼽았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이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IT 기술 발달로 전 세계가 단일 타임라인에 놓였죠. 십 년 전에는 지구 끝에서 감염병이 유행하면 한두 달 뒤에나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브라질의 지카바이러스를 실시간으로 인지하잖아요. 동시에 눈앞에 벌어지는 일인 것처럼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요. 신종감염병의 대두는 세계가 평평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제는 전 세계가 방역대상이기에 국가 간 긴밀한 소통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을 하면서 일본, 중국, 홍콩, 방글라데시 등 협력을 했던 경험을 살려 김우주 교수는 본격적인 국제적 공동연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 막아낼 ‘공공선’에 더 많은 관심을”

“고대병원에는 ‘민족과 박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일들을 해왔죠. 특히 대학병원들이 꺼리던 구로동이나 안산 두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많은 공헌을 했어요. 재벌들이 강남에 병원을 지어 수익을 내려는 것과 다른 행보죠. 재벌, 종교단체, 정부가 받쳐주지 않는데도 여기까지 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연구를 위한 편당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어요. 메르스 때 저희 병원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연구기금은 전부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KU-MAGIC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기금이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 바이러스 및 감염병의 공포를 막아낼 ‘공공선’에 많은 분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말 메르스 사태로 심신이 많이 지쳤다는 김우주 교수. 2016년에는 다시 건강관리에 힘쓰면서 KU-MAGIC과 국제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그의 손에서 꼭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길 바란다.



##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지성욱 교수

## 부작용 없는 ‘RNA 신약’ 기술 개발, ‘맞춤형 진료’에 다가가다



지성욱 교수 연구진이 ‘RNA 신약’(RNA 간섭 치료제 siRNA-6pi) 기술을 개발했다. 작년 12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된 이 기술은 특히 ‘KU-MAGIC(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의 5대 연구과제 중 ‘맞춤형 진료’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RNA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법은 세포 내 ‘마이크로RNA(miRNA)’의 유전자 억제 현상(간섭현상)을 이용해, 인위적인 외부RNA 간섭 물질(siRNA)을 주입 후 암, 대사질환, 바이러스 감염 등의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이다.

“화학 실험을 수차례 하는 것에 비해 유전자 서열을 바꾸는 것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기에 제약회사나 대부분의 생명과학 연구실에서 손쉽게 사용하는 기술이죠. 하지만 siRNA 치료 기술은 불가피하게 세포 내에서 miRNA로 오작용하여 원치 않는 유전자의 기능까지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 저희 연구진은 miRNA가 어떻게 유전자를 인식하는지 오랫동안 염기서열분석을 해왔는데요. 마침내 화학적으로 특정 위치를 변형하면 siRNA가 miRNA처럼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siRNA-6pi)을 개발하게 되었죠.”

## 암을 비롯한 난치병 치료에 응용

치료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부작용을 완벽히 없애는 이 기술은 KU-MAGIC ‘맞춤형 진료’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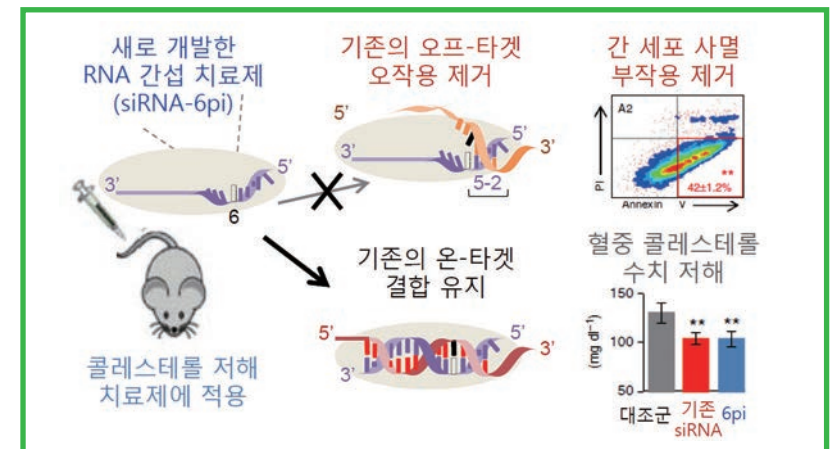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 유전자만 알면 그 유전자를 억제해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이기에 어떤 환자든지 질병의 종류에 따라 맞춤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저희 후속연구이기도 한데요. 이미 고지혈증 신약개발 단계에서 기술을 적용해 실험을 했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후 RNA를 세포 안에 집어넣는 기술만 개발된다면 곧바로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연구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항상 고민,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 커지길...

고려대 생명과학부 95학번인 지성욱 교수는 유전체 서열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던 시기에 ‘생물정보학’이란 분야를 알게 되었고, 본격적인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생소한 분야인 데다 생물학과 컴퓨터학, 통계학을 한꺼번에 공부해야 했기에 힘든 과정을 감내해야 했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2009년 ‘miRNA’를 조절할 수 있는 유전자지도를 최초로 해독해냄으로써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때의 연구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늘날의 성과에 이르게 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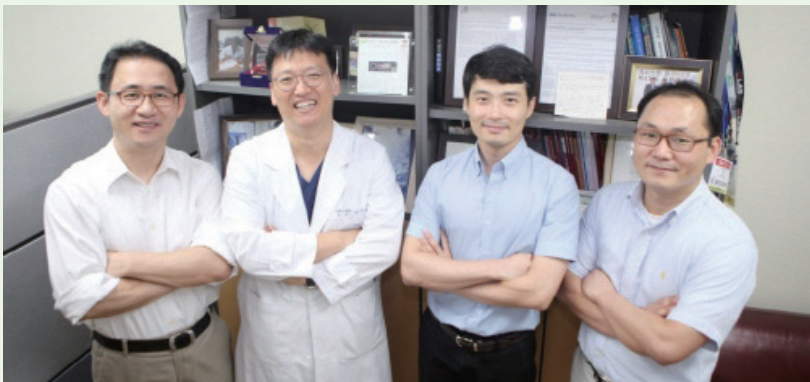
“항상 제 연구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봅니다. 몸 안 RNA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초적인 생물학 질문에 답하다 보니 그것이 제약 분야에 응용되고, 오랫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죠.”

이번 성과를 계기로 기초과학의 중요성 특히 생명과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한 것 같아 기쁘다는 지성욱 교수. 그는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연구를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 김진원 교수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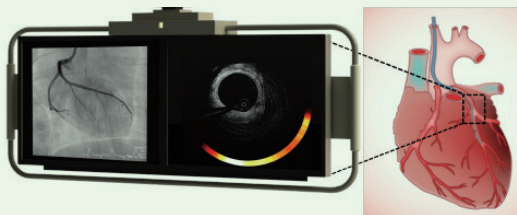


## ‘심장마비’ 예측 심혈관 융합 영상 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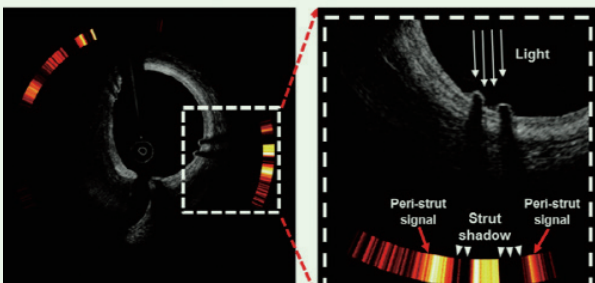


고속 카테터 영상시스템의 심장 혈관내 심장마비 유발  
동맥경화반 정밀 영상 검출

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김진원 교수, 한양대 생체공학과 유홍기 교수,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오왕열 교수,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춘천센터 박경순 박사로 이루어진 국내 융합 연구팀은 ‘고속 융합 광학 카테터 영상 시스템을 통한 심장혈관 내 동맥경화반의 고해상도 정밀 통합 분자영상’을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본 연구팀은 2011년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에 해당 영상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처음 보고한 이후, 2014년 인체 내 적용 가능한 분자영상 조영제 활용을 통한 광단층 분자영상 카테터 기술 개발에 잇달아 성공한 국내 최고의 융합 연구팀으로, 올해 인체내 적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난관이었던 박동하는 심장 혈관 내 심장마비 유발 고위험 동맥경화반의 고속 융합 영상 및 인체조직 동맥경화반의 염증활성도 복합 영상화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논문은 심장학 분야의 최고 권위있는 저명 학술지인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 IF 15.203) 최신호에 게재되며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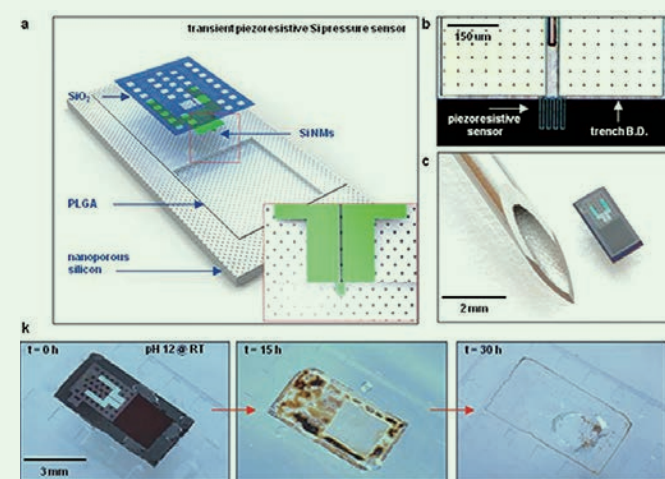


심장혈관 내 약물 용출성 스텐트의 복합 염증 활성도 영상  
: 분자 영상 융합 기술이 적용된 카테타를 통해 심장혈관  
내에서 염증이 활성화된 부위를 확인할 수 있다.



## 황석원 교수팀, 생체 내에서 분해 가능한 브레인 센서 개발

개발된 뇌안에서 분해 가능한 센서의 구조 및 실물 사진.  
a. 개발된 센서의 전개도. 센서는 생체에서 분해가 가능한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음. 실리콘 박막, 실리콘 산화막 박막  
및 바이오 폴리머 (PLGA; poly(lactic-co-glycolic acid))  
및 다공성 실리콘 구조체를 통해 3차원 구조의 센서를  
구현하였음. 실리기신호로 측정할 수 있음.  
b. 실리콘 압전 저항 센서 부분에 대한 확대사진.  
c. 수술용 바늘과 비교하여 개발된 센서의 크기를  
비교하였음. 개발된 소자의 크기는 1 mm X 2 mm X 0.1  
mm 수준으로 매우 작음. k. 뇌척수액에서 개발된 센서가  
분해되는 과정을 시간에 따라 측정한 사진.



## 김효명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



## “스마트 헬스케어 주도할 것”

지난 12월 22일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김효명 고려대 제13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취임했다. 김효명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은 “민족과 박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구축해 세계를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면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로병원과 안암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으로 연구에 활력이 돌고 있으며 안산병원에서도 기초와 임상 의 특성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연구지원 시스템을 완비하여 기초와 임상의 융합,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장기계획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KU-MAGIC 프로젝트의 조속하고도 성공적인 실현을 통해 의료원뿐 아니라 고려대학교의 발전에 우리 의료원이 최선봉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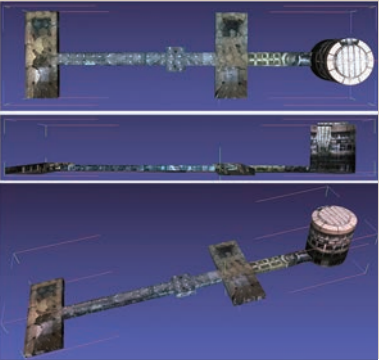


##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기만 해도 3차원 실내 지도가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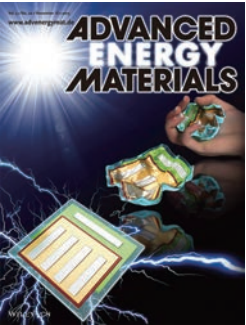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도락주 교수 연구팀은 실내공간의 영상과 거리정보를 빠르게 스캔하여 3차원 실내지도를 제작하는 '이동식 3차원 실내지도 작성 장치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1월 19일(화) 위치 기반 서비스 분야의 선도 업체인 ㈜버추얼빌더스에 경상이술료 10억 원에 기술이전됐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실내지도 제작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세계 최고 기술이다. 기존 기술이 실내 와이파이 신호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움직이는 장비의 위치추적이 불가능하였다면, 개발된 기술은 휴대용 장비에 공간인식이 가능한 센서들을 장착하고 이를 활용해 공간을 모형화하는 **SLAM**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 경우 센서가 장비의 위치를 10cm 이하로 매우 정밀하게 이동 거리와 위치를 측정하여 정확한 실내지도의 작성이 가능하다. (※ **SLAM** : 이동로봇이 자신의 위치를 측정하면서 동시에 주변 환경의 지도를 작성하는 로봇공학 기술) 또한, 와이파이 신호의 강약을 정밀하게 조사해야만 지도 제작이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실내공간에 대한 아무런 사전정보 없이도 어디서나 바로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현실 세계와 가상공간을 하나로 연결한 새로운 현실, 실감 교류 확장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3D 콘텐츠 제작 원천기술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콘텐츠가 기술적 한계로 컴퓨터를 활용한 가상 환경을 제작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실제의 실내 공간을 3차원으로 제작해 HMD(안경형 디스플레이, Head Mounted Display)와 같이 3차원 영상을 보여주는 환경에도 이용 가능하다. 이번 기술을 개발한 도락주 고려대 교수는 "기존 지도 서비스들은 단순 2차원 영상을 합쳐 놓았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경우 답답한 느낌을 주는 반면, 앞으로 시작될 3차원 지도 서비스는 사용자가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고려대학교 중앙광장.  
(상) 측면도, (중) 단면도, (하) 조감도

## 웨어러블 태양전지, 이제는 옷으로 입는다



본교 KU-KIST 융합대학원 고민재 교수팀과 연세대 기계공학과 김대은 교수팀은 형상 기억 고분자 기판위에 기존의 잘 깨지는 투명전도성 전극과 금속 후면전극 대신에 고분자 투명전극과 액체 금속을 사용하여, 태양전지를 접고 구기더라도 원래 형태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플렉서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최근 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향후 실리콘 태양전지와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 시작 3년 만에 최고 효율 20.1% 까지 기록했고, 용액 및 저온 공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플렉서블 태양전지로 사용되기에 최적화 된 물질이다.

플렉서블 태양전지는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150도 이하의 저온 공정을 필요로 하는데, 유기 반도체를 페로브스카이트와 전극 사이에 중간층으로 사용하는 태양전지 구조에서는 모든 공정이 150도 이하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웨어러블 및 플렉서블 소자의 전력 공급체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투명전극 기판이 필요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필름은 많이 구부러거나 접으면 소성 변형이 쉽게 일어나서 원래 형태로 회복이 되지 않고 투명전도성 전극 역시 잘 깨지기 때문에 웨어러블 및 플렉서블 소자에 적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기판이다. 공동연구팀은 이러한 플라스틱 필름 대신 형상 기억 고분자(\*NOA 63)를 평평한 기판으로 만들어 120도 이하의 저온 공정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구성했다. 연구책임자인 고민재 교수는 "개발한 태양전지는 유연성이 매우 뛰어나고 용액 및 저온공정이 가능하며, 효율이 높아 웨어러블 태양전지, 휴대 전자 소자 등 다양한 전자 기기의 핵심적인 광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페로브스카이트** : 유기물이 달린 양이온과 요오드화납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로서, 최근 차세대 태양전지의 광 흡수층으로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이다. 기존의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진정일 석좌교수,  
국내 최초 미국화학회  
PMSE 펠로우 추대돼

진정일 KU-KIST 융합대학원 석좌교수가 국내 과학 자로는 처음으로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 ACS)의 PMSE(Polymeric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펠로우(석학회원)로 추대됐다. 진정일 석좌교수는 액정중합체, 전도성 및 발광성 등 기능성고분자와 DNA 재료 과학 연구에서 세계를 이끌어 왔다. 고분자 재료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논문 400여 편 이상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했으며 고분자과학교육에 세계적 진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김준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받아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김준 교수가 2015년 12월 30일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장으로 지난 3년간 근무하며 기초연구사업 발전 및 기초연구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준 교수는 고려대 생명과학부 학부장과 국제생물올림피아드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지냈다.



김종승, 이해근 교수  
2015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선정한 2015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본교 연구진 2팀이 선정됐다. 이과대학 화학과 김종승 교수,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이해근 교수가 그 주인공. 김종승 교수는 “암세포에만 약물을 전달함으로써 항암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약물전달복합체 개발” 연구로 최우수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김종승 교수팀은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에만 약물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 전달과정까지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약물전달 복합체를 개발하여 신개념 암 진단과 치료법 개발에 가능성을 열었다. 김종승 교수는 올해 초 세계적인 학술정보 서비스기업 톱슨 로이터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명단에 선정된바 있다.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이해근 교수 연구팀은 “풍력 터빈 발전기용 2세대 고온초전도 무절연/무저항 게자코일 제작 기술”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이해근 교수팀은 이 연구개발을 통해 고온초전도 마그네틱 절연을 생각하는 신개념 무절연 권선기술, 고체/액체냉매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냉각 기술, AE센서를 이용한 시스템 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현재 MW급 대용량 풍력발전기 개발의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원천 기술들을 확보했다. 따라서 2세대 고온초전도 기술을 이용하여 국내 대용량 해상풍력단지 조성함으로써 고효율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국내 에너지수요의 한 축을 담당하여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회 교우회  
학술상 수상자에  
이종흔·이경미 교수 선정

고려대학교 교우회가 제정한 ‘제3회 고려대학교 교우회 학술상’ 수상자로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이종흔 교수와 의과대학 의학과 이경미 교수가 선정됐다. 고려대 교우회는 2014년부터 국내 대학 교우회 사상 최초로 모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모교에 재직하는 교수 중 뛰어난 학문업적을 이룬 교수들을 선정해 ‘교우회 학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인규 교수  
IEEE 석학회원 선정돼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이인규 교수가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에서 “무선통신에서의 다중안테나 연구”에 관한 공헌을 인정받아 석학회원(Fellow)으로 선정됐다. 국제전기전자공학회는 세계 학술단체 중 최대 규모로서, 전기전자 및 컴퓨터 분야에서 40만 명의 회원이 있고, 이 중 0.1%만이 석학회원으로 선정된다. 무선통신 분야의 권위자인 이인규 교수는 그간 120여 편의 IEEE 저널논문을 게재했고 총 4,000여 회에 이르는 피인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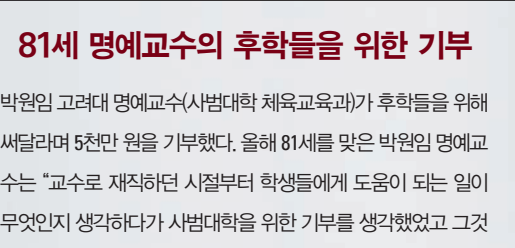
동화그룹 승명호 회장,  
모교와 후배들 위해 30억 기부

승명호 동화그룹 회장이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30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고려대학교 발전기금과 경영대학 발전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본교 무역학과 74학번이기도 한 승명호 회장은 평소에도 고려대 발전을 위해 6억 5천만 원이 넘는 기부를 이어오기도 했다. 고려대는 승명호 회장이 이번 기부와 그동안 보내온 소중한 뜻에 대한 감사와 예우의 표시로 승명호 회장의 이름을 딴 강의실을 명명할 예정이다. 또한 기금의 사용 내역을 매년 보고하여 승명호 회장의 숭고한 뜻이 모교의 발전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이끌어 가는 모습을 공유하고, 대학 기부가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코리아(주)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과대학에 기증

글로벌 계속장비 전문기업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코리아(주)가 고려대 공과대학에 39억 원(US \$3,452,000) 상당의 교육용 소프트웨어(ADS 9세트, Goldengate 2세트)를 기증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초고주파 회로 및 시스템 설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자설계자동화(EDA,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Tool로서 전기전자공학부를 비롯한 교내 관련 기관에서 연구 및 교육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코리아(주) 윤덕권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용 소프트웨어 기증을 통해 고려대의 RF 및 마이크로웨이브 회로 설계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고려대와의 산학협력도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81세 명예교수의 후학들을 위한 기부

박원임 고려대 명예교수(사범대학 체육교육과)가 후학들을 위해 써달라며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올해 81세를 맞은 박원임 명예교수는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다가 사범대학을 위한 기부를 생각했었고 그것에 대한 실천을 했을 뿐”이라며 미소지었다. 박원임 명예교수는 이번 기부 외에도 사범대학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천만 원 이상의 기부를 이어왔다. 이번 기부금은 앞으로 사범대학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과 교육프로그램 기금으로 운영되며 특히 사범대학 학생들의 국제화 프로그램에 쓰여질 예정이다.



‘나눔’을 향해 샷! 그린을 가르는 고려대 스타골퍼들

고려대는 11월 30일 경기도 성남시 남서울 컨트리클럽에서 ‘2015년 KU PRIDE 나눔골프대회를 열었다. 나눔골프대회는 전인지, 김효주, 리디아고, 노승열 등 14명의 골프스타와 홍명보, 현주연, 이규혁 등 각 분야 스포츠 스타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 이번 나눔골프대회는 일반인 참가자들이 스포츠스타들과 함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자리로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애장품 판매에는 리디아고 선수가 2015년 우승시즌에 사용한 퍼터를, 전인지 선수는 2015 LPGA투어 US 여자오픈 우승 당시 착용했던 유니폼 상의와 우승기념 금장퍼터를, 김효주, 김민선, 박재운 선수는 각각 애장품으로 골프세트, 노승열, 최웅정 선수는 드라이버를 내놓았다. 골프선수들 외에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등 스포츠 스타들도 나눔에 합류했다.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부가 아닌 스포츠 선수들의 재능기부와 일반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새로운 나눔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기부문화의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 고려대 박물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학생들에 졸업전 개방

고려대 박물관은 12월 17일부터 30일까지 '2015 디자인 조형학부 조형예술과 졸업전시회'에 박물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기획전시실을 학생들의 작품전에 대여했다. 졸업전에는 평면작품 외 설치작품까지 모두 30점이 전시됐다. 조명철 박물관장은 "학생들에게 전시실을 개방한 것은 박물관으로서는 '파격적인 조치'라며 "작품도 우수할뿐 아니라 관례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예술의 길을 걷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개방 이유를 밝혔다. 조형예술학부 학생들 또한 이번 기회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졸업전이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더 큰 무대로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것 같다"며 입을 모아 말했다.



# PRAXIS

PRAXIS 섹션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고대인들의 삶을 담습니다.  
소유 지향적인 삶을 지양하고 존재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캄캄한 밤 어둠 속의 길이 되는 별 하나와 같이 자신만의 빛으로 주변을 밝히는  
고대인들의 이야기 장이 될 것입니다.

harmony  
&  
obligation





# 한국 최초 자율주행차를 만든 한민홍 대표

2007년 구글이 구글카를 내놓은 후  
자율주행자동차를 향한 열기가 지구 전체를  
휘감고 있다.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라니. 모두가 꿈꾸던  
상상이 눈앞에 곧 도래할 것에 설레지만, 1993년  
이미 고려대학교에서는 당시 산업공학과 한민홍  
교수가 만든 자율주행자동차가 운동장을 세차게  
가르고 있었다.

구글보다 앞서 20년 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future of mobility

한민홍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 / 조지아 공대 산업공학과 박사 / 前 고려대 산업공학과 교수 / 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 前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연구원 / 현 첨단차 대표

용인시 수지구에는 고려대 교내 벤처로  
시작한 한민홍 대표의 ‘첨단차’ 사무실이  
있다. 2007년 정년퇴임 후 여러 기관에  
자율주행자동차 연구 관련 조언을 해왔던  
그는 이제야 본인의 사무실에서 느긋하게  
자신만의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유학 시절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이 분야는 제 전공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복합적인 이론과 기술이 접목되어  
있거든요.”  
당시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하는 곳이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정도 밖에 없었다는 걸  
감안하면 한 대표의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앞선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한민홍 대표가 최초로 시도한 것이  
자율주행자동차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95년 모터쇼에 최초로 대우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달아준 장본인이며, 최초의  
드론이라 할 만한 무인항공기를 띄워 교내  
우편물을 운반한 재치 있는 학자였다. 작금에  
주목받는 산업기술은 이미 93~95년 사이  
그가 모두 구현해낸 것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인터넷에 ‘무인자동차’나  
‘자율주행자동차’를 검색하면 한 대표의  
‘첨단차’가 가장 먼저 검색되었다.

“청계천 고가도로나 한남대교 등 세상이  
모두 내 시험도로였어요. 지금처럼 도로를  
통제하고 변수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자율주행한 것이 아니었죠.”  
93년 당시 직접 캠코더로 찍은 영상에서 한  
대표의 차는 286 컴퓨터를 달고 고속도로를  
100킬로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다.  
“왜 있는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늘  
똑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기술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걸 복습이라고 불려요. 정부에 이제는  
복습이 아니라 예습을 할 때라고 말하지만,  
소용이 없네요.”  
그렇게 묵묵히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해온  
그는 국내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자동차가 완벽히  
기능하는 날은 아직 멀었다고 말한다.  
“지금은 버튼만 누르면 어디든 가니까  
자율주행에 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100% 자율주행이  
불가능해요. 인간에 준하는 인공지능이  
필요한데 그 기술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났다는가  
시야를 가릴 정도의 비가 내리면 인간은  
나름의 상황 판단으로 운전할 수 있지만,  
지금 수준의 소프트웨어로는 그것이  
힘들죠.”

자율주행자동차의 작은 오류는 곧 사고로  
직결되기에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선불리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한 대표의 생각이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가  
미래주요산업이 될 거라고 말하지만, 실제  
구현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한 대표는 이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연구는  
다 한 것 같다고 말한다.  
“나머지는 후학들의 과제죠. 저는 이제 그간  
확보한 기술로 운전자의 피로도와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보조장치를 상용화하려고  
해요.”  
누가 뭐라 해도 고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본산지니까 고대에서 결정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는 한민홍 대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남들과 다른  
방향에서 소프트웨어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기술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 그이기에  
힘이 닿는 대로 학교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그가 고려대에 있는 동안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했던 것처럼 후배 교수들도 상상력과  
기술을 버무려 멋진 결과물을 내길 바란다는  
옹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





## 해조류에서 자동차 연료의 미래를 발견하다

김경현 교수와 최인걸 교수의 공동 연구는 한국 자동차 연료 산업에 새 희망을 불어넣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제3세대 바이오 에탄올' 연구결과는 환경 미생물 분야 국제학술지인 <환경미생물학(Environmental Microbiology)>에 게재되었다.

### 대학원 생명공학과 김경현 교수



#### 김경현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석사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화학공학과 박사 / 고려대학교 BK21 PLUS 생명공학원 사업단 부단장 / 한국대사체학회 운영위원장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대학원 생명공학과 교수

화석연료가 고갈됨에 따라 대체자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바이오 에탄올 개발에 세계가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이 열악한 한국은 이 열기에 동참하지 못하는가 싶더니, 김경현 교수가 세계 최초로 홍조류에서 제3세대 바이오 에탄올 생산이 가능함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희망이 열렸다. “홍조류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바이오 에탄올 생산에 유리하지만, 그간 홍조류 주성분인 ‘한천 무수당’의 대사경로가 알려지지 않아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한계를 깨기 위해 저희 연구팀은 한천 무수당을 먹고 자라는 해양미생물을 분리하고, 이 미생물이 당을 분해하는 대사경로를 규명하는 데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였죠. 기존 산업용 미생물과 달리 새로운 발효 효소를 가진 대장균을 이용하면 한천 무수당을 발효시켜 홍조류에서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김경현 교수는 무엇보다 이 기술이 자동차 연료에 이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자동차 연료가 에너지 사용비용이 높죠. 자동차 연료로 전기, 수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전기는 아직 배터리 문제가 남아있고, 수소는 위험한 데다 저장수단이 마땅치 않거든요. 하지만 당장 휘발유를 바이오 에탄올로 대체하려면 엔진만 약간 바꾸면 되죠. 브라질에는 80%가량의 자동차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50만 헥타르의 양식장에서 거대조류를 양식하여 에탄올을 생산하게 되면 국내 자동차 휘발유 소비량의 31%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처음부터 연구가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 바다는 차가워서 홍조류 양식이 힘들다는 반대에 부딪혔어요. 사실 홍조류 중에서도 한국 바다에서 양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그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산유국이 아닌 우리가 석유화학 연구를 하는 것처럼 원료가 없더라도 다른 나라와 협약을 맺어 가공기술을 활용할 수 있죠. 다행히 이런 논리로 설득에 성공했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었어요. 또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해외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김 교수는 앞으로도 단순히 연구비만 좇아 다니는 연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다. “지금 하는 연구를 발전시켜서 산업화까지 가는 것이 목표예요. 아니면 완전 새로운 원천기술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연구실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고, 10년 안에 시범공장을 가동할 수 있으리라 내다보고 있어요.” 김경현 교수는 자기와의 약속, 동료와의 신뢰를 중요시하는 공동연구에 최적화된 연구자다. 그의 신념 덕분에 한국은 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할지도 모르겠다. 🌱



future of



## 경영학도에서 르노삼성 디자인의 중심이 되기까지

글 권성수 / 사진 김선아

2015 가장 아름다운 차 '1위'에 선정된 탈리스만(Talisman). 국내엔 SM6로 출시된 이 차는 창조적 디자인 감각과 뛰어난 퍼포먼스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SM6의 디자인을 총괄한 성주완 교우, 그가 지금의 르노 디자인 아시아센터의 중심이 되기까지 과정을 들여보았다.

### 성주완 교우

경영학도인 성주완 교우가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한 건 2학년 여름방학 무렵 한 신문의 스페셜 기사를 본 이후다. “자동차 디자이너에 관한 이모저모를 본 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당시 학문 간 융합이 전무하던 시절이었지만 경영학과 자동차디자인이 분명 접점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독학을 시작했어요.” 그는 무작정 미술학원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자동차 디자이너를 꿈꾸는 모임에 참석해 그림연습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국의 패서디나 아트센터(ACCD)에 들어갔다. “동네에서는 그림을 꽤 잘 그렸다고 해도 세계 최고 디자인 학교에서는 역시 실력 미달이었어요. 남들보다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죠. 남들 두 장 그릴 때 네 장 그리면서 겨우겨우 커리큘럼을 따라갔고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어요.”

졸업 시기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전과 달리 졸업생들에게 쉽게 취업 기회가 오지 않았다. 현지 학생도 그럴진대 외국인인 성 교우에게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자동차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혈혈단신 미국으로 와 근성만으로 버텼던 그는 다른 학생들처럼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무작정 포트폴리오를 들고 디트로이트에 있는 GM 본사에 찾아가 면접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의 배짱이 통했는지 성 교우는 곧바로 GM의 디자이너로 채용되었다. “아트센터에서도 겨우 바닥에서 올라갔는데 GM에서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습득해야 하는 것도 많은 데다 수많은 디자이너와 경쟁해야 했죠. 그래도 6년간 일하면서 여러 차종을 섭렵하면서 점차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디자이너로서의 큰 자산을 획득한 그는 르노삼성의 제안을 받아 10년간의 외국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에 오자마자 그에게 맡겨진 일은 SM7을 프랑스에서 개발해 한국에 들여오는 프로젝트였다. 몇 번이나 바닥부터 시작한 경험이 있는 성주완 교우는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고 마침내 SM6 프로젝트를 총괄하기에 이르렀다.

“아무래도 디자이너로서의 직관도 중요했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경영학도로서 강점이 있었습니다. 산업디자이너라는 것이 결국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 그 부분에서 특화되었죠. 또 차를 개발하다 보면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협상을 하거나 치열한 토론을 하기 마련인데 고려대학교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형성됐던 사회성이 크게 도움이 되었어요.”

성주완 (경영 93)

패서디나 아트센터(ACCD) 졸업 / 前 제너럴모터스(GM) 디자인센터 리드 디자이너 / 르노 디자인아시아 수석디자이너

성주완 교우에게 SM6는 이제 자식 같은 자동차다. SM6가 출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인기몰이 중인 지금 그는 긴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성주완 교우는 그가 디자인한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낀다. 또 일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이 직업이 그의 도전정신을 자극한다고.

“디자이너로서 대중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지만, 때로는 소수 마니아층에 저만의 디자인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제 디자인이 상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지점이에요.” 그는 인터뷰 끝에 꼭 잊지 말고 이 말을 넣어달라고 했다. 자동차디자이너가 된 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바로 모교 인터뷰를 한 지금이라고. 🍷

mobility





답답하고 당당하고 단단하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어온 그가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 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지난해 5월의 일. 무려 128년 역사의  
국제여성 비정부기구를 이끌게 됐지만, 그는  
매우 ‘일상적으로’ 자신이 할 일을 해나간다.  
책임의 범위가 넓어졌을 뿐, 오랜 세월 온몸으로  
한국여성계를 이끌어온 그에게 ‘늘 해오던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덧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  
있다.



# 여성, 세상을 바꿀 절반의 별들

세계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정숙 교우(교육학 66)

한국여성계의 대모,  
세계여성운동을 이끈다  
그의 보랏빛 재킷에는 은빛의 상징물이  
걸려 있다. 햇빛이나 조명을 받으면 별처럼  
반짝인다. 세계여성단체협의회 로고가  
새겨진 배지(badge). 지구상의 모든 여성들이  
그것처럼 빛나기를, 하나하나의 별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를 그는  
진심으로 소망한다. 그가 한국여성운동계의  
‘대모’에서 세계여성운동계의 ‘대표’로  
거듭났음을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다.

“2012년 서울에서 ICW 총회를 열었어요.  
그 때 열린 세계총회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주최국의  
문화가 충분히 소개됐고,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연사들의 면면도 아주 훌륭했다는  
칭찬이 쏟아졌죠. 서울 총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치러낸 것이, 지난해 회장으로  
당선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여성단체들이 성심껏 도와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내 개인의 영광보다는,  
한국시대가 온 거라는 상징이라 생각해요.”  
서울 총회 당시 ICW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2015년 5월 31일 터키  
이즈미르에서 열린 ICW 총회에서 대의원  
200여 명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당선됐다.  
세계여성단체협의회는 1888년 지구상  
최초로 생겨난 국제여성 비정부기구다.  
70여 개 회원국들이 3년마다 열리는  
총회를 통해 세계여성운동의 활동방향을  
제시한다. ICW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기구이기도 하다. 유엔 산하기관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에 참여해,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 결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막강한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고도 그는 무척 답답해  
보인다.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자신이  
걸어온 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여성운동은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여성들이 직접 깨끗하고 투명한 세상을  
만드는 쪽으로 나가야 해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여성은 2등 시민이 아니에요.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발전에 절반의 책임을  
나눠져야죠. 그러자면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힘을 써줘야 해요. 3년의 임기  
동안 그 일에 집중할 생각이예요. 여성들을  
21세기 리더로 길러내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힘을 쏟고 있어요.”  
그가 해야 할 일은 그 외에도 많다.  
여성문제는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친  
사회문제가기 때문이다. 환경, 교육, 복지,  
의료, 국방, 외교…. 여성의 시각이나 의견,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  
힘을 보탠다. 갈수록 더 바빠진다.



그가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를 설립한지 올해로 벌써 27년이다. 강산이 세 번 가까이  
변한 지금, 세상이 좋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는  
확신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과 환경,  
의료, 복지 등에서 여성들의 전문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성의 행복을 가로막는  
기존의 제도를 바꾸는 데는 여성들이 직접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다. 법을  
만들려면 국회에 진출해야 하고, 그러려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의사결정구조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회가 투명사회예요. 핀란드가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의 힘만으론 안 돼요.  
선진국처럼 여성의 공천율을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높여줘야죠. 지금 한국사회는  
정치에 대한 혐오가 깊지만, 본래 정치는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기’  
같은 거예요. 한국의 정치문화를 바꿔가는  
것, 정치에 참여하도록 이 땅의 여성들을  
독려하는 것,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은 계속 해나갈 겁니다.”  
14대,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국회에  
진출하자마자 여성들의 모성보호 관련  
법률을 발의하거나 제정하는 데 집중했다.  
여성이 아이를 가지면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시절, 여성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괴로워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여성의  
정치참여와 사회참여를 높이는 법률을  
제정하는 데도 쉽없이 앞장섰다. 법이 바뀌면  
세상의 의식도 당달아 바뀔 것이라 믿으며,  
여성을 위한 법 만들기에 끝없이 매진했다.

“2003년, 16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1세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우리 결혼 아직  
매 맞는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하도  
가슴 아파서, 매 맞는 여성들이 고발하면  
‘전치 2주’만 나와도 남자를 바로 구속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법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20명의 동의를  
필요한데, 당시 여자 국회의원이 1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자 국회의원 중엔  
단 1명만이 그 법에 동의를 해줬거든요.  
결국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어요.  
그러니 여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그는 현재 아태여성정치센터 총재로도 활동  
중이다. 그 센터가 있는 필리핀에 갈 때마다  
그를 부럽게 만드는 풍경이 하나 있다.  
그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태반이 자원봉사자들이고, 그들의 상당수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엘리트들이다. 그의  
‘호소’는 계속된다.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사회공공의 발전을 위해 쓰자고, 사적 영역에  
머물면 ‘나’만 행복하지만 공적 영역으로  
넘어오면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듣는 이의 가슴을 뜨끔하게 만들어놓고,  
무슨 일 있었냐는 듯 그가 웃고 있다.🌹



“의사결정구조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회가  
투명사회예요.  
핀란드가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의 힘만으론  
안 돼요.

선진국처럼  
여성의 공천율을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높여줘야죠.

지금 한국사회는  
정치에 대한  
혐오가 깊지만,  
본래 정치는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기’ 같은 거예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고려대 교육학과 66학번인 그는  
이화여대에서 교육학 석사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유학을 떠난 건 그의 나이  
서른일곱 살 때였다. 대학을 졸업한 뒤엔  
은행에 취직해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했고, 결혼을 한 뒤엔 남편의 병원 개업을  
돕고 병원 식구들 뒷바라지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젠 용기를 내고 싶었다. 간절히  
하고 싶었던 공부를 이제라도 원 없이 해보고  
싶었다.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그는  
그러나 교수의 길을 걷는 대신 국회의원에  
덜컥 입후보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떨어졌다.  
“그 때 처음 내가 여자라는 자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자라서, 나이도 많지 않은  
여자라서, 아무도 안 찍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내 고향친구들만 해도 여자는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일찌감치  
공단으로 취직하거나 남의 집 식모살이를  
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도 나는 여자들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던 거예요. 남자들과의 경쟁에서 저분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선거에서 지고 나니  
며칠간 밤잠이 다 안 오더라고요. 얼마 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높여 한국의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로 마음먹었죠.”



## 마을 안에서 다함께,

## 마음 나누며 따뜻이

마을연구소  
정기석 교우(지질학과 82)

제주도를 제외하고 그가 살아보지 않은 도(道)는 없다. 서울에서 '도시난민'으로 살다, 전국을 떠돌기 시작한 것이 2002년의 일. 여러 지역에서 술한 직업을 거치며 깨달은 것이 그에겐 있다. 비어가는 시골의 '마을시민'이 되어, 일과 생활과 놀이가 하나 되는 삶을 꾸리는 것.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길이라 그는 믿는다. 그 믿음을 널리 '전도'하는 게 그의 목표다. 혼자만 잘 살면 아무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 행복의 이름, 마을

그는 잘 웃지 않는다. 아니 그러지 못한다. 유쾌하게 웃거나 상쾌하게 미소 짓는 건 애초 그의 '체질'이 아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이 행복해질 방법을 쉽없이 연구한다. 웃을 일 없는 세상에서, 다함께 웃으며 살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한다. 그와의 대화는 그래서 인상적이다. 한없이 무거운 목소리로 더없이 행복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는 끝내 웃지 않지만, 듣는 이의 얼굴엔 이내 환한 미소가 돈다.

비인가 '마을연구소'의 소장 겸 급사. 이것이 요즘 그의 직업이다. 그가 생각하는 마을은 '일과 삶과 놀이'가 같은 시공간에서 이뤄지는 곳이다. 그러니 서울은 마을이 아니다. 오래 전 그가 그 도시를 떠난 이유다. "나는 서울을 '난민촌'으로 표현해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니깐요. 제 부모님도 고향 진주를 버리고 서울에 갔드셨어요. 겨우 네다섯 살 때였는데도, 이삿짐을 꾸려 서울행 기차를 타던 기억이 생생해요." 먹고 살기 위해 그도 많은 일을 했다. 말단 은행원, 군소언론 기자, 소호벤처 경영자, 영세출판사 기획자를 전전하면서 '도시난민' 생활을 열심히 했다.



제천시 덕산리 누리마을 뽕카페.

밥벌이를 하다 보면 달갑지 않은 악역을 떠맡을 때가 종종 있었다. 자신이 피하면 동료나 친구가 불행의 주인공이 되는 일이 왕왕 벌어졌다. 부끄러움이 날로 커졌지만, 도시의 거대한 '구조악'에 홀로 맞설 자신은 그에게 없었다. "마흔 살이 되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도시난민에서 마을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국 각지로 '자발적 유배'를 떠났어요." 2002년 새봄이었다. 타오르기 시작한 월드컵의 열기를 뒤로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순회'의 길에 덜컥 들어섰다. 청주, 춘천, 진안, 산청, 김천, 부산, 원주, 무주... 전국 각지로 이삿짐을 옮겨 다니며 농업회사 농장관리자, 생태마을 막일꾼, 유령작가, 농촌·귀농컨설턴트, 마을연구원, 마을선생 등등의 일을 했다. '난민촌'을 벗어나고도 삶은 여전히 고단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마을공동체를 꾸리는 일도 수시로 좌절됐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엔 단단한 믿음 하나가 자라났다. 사람 사는 대안마을, 인간은 그곳에서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술한 지역에서 넘어지고 엮어지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였다.

"사람 사는 대안마을은 도시인에게 관광거리를 제공하는 마을이 아니에요. 그 마을엔 지속가능한 '마을기업'과 훈련된 '마을시민'이 있어야 해요.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기업, 그 기업을 세우고 꾸릴 마을시민, 여기에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마을시민을 키워낼 중간지원조직이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런 마을을 만들자면 원주민만으론 안 돼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도시인들이, 비어가는 농촌의 마을시민으로 들어 가야죠." 마을로 들어가 마을사람들과 부대끼고 생활하면서, 자신의 마을을 '사람 사는 대안마을'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는 '마을주의자'라 부른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들어서기를, 그래서 우리 사는 세상이 훨씬 행복해지기를 그는 진심으로 소망한다. 꿈이 거기에 있으니, 그 어떤 바람에도 쉬이 흔들리지 않는다.





01\_ 과산군 미루마을 숲 속 작은책방.  
02\_ 제주 봉성리 문화예술공방 반짝반짝 지구상회.  
03\_ 상주시 승곡체험마을 공동체귀농학교.  
04\_ 홍성 윤월리 느티나무헌책방.

### 서로 믿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

“2년 전 독일 농촌공동체로 연수를 다녀왔어요. 그곳 사람들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되니, 우리가 왜 불행한지 알겠더라고요. 그 사회는 제도나 정책 이전에 신뢰나 협동, 참여, 연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축적돼 있었어요.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이 잘 돼있어서 서로 싸울 일이 없었고요. 학비가 무료이니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에 힘을 빼지 않고, 직장에서 잘려도 채취업이 잘 되니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불안이 없죠. 국가나 이웃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해요. 이 문제는 개인들의 노력만으론 해결되지 않아요. 국가에 당당히 요구해야죠.”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그는 가장 먼저 학교를 꼽는다. 그가 말하는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서로 믿는 법을 가르치는, 자연 속에서 서로 사이좋게 뛰놀면서 협동하고 연대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다. 먹고 사는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도 여기에 포함된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세상의 지혜를 배워가는 곳. 그런 학교가 마을마다 지역마다 생긴다면, 우리 사는 세상은 지금과 전혀 다른 빛깔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마을에도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마을 안에 공동체카페 겸 작은 학교를 열어 공동체 관련 공부도 하고, 책 읽기 모임도 갖고, 마을 특산물도 판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골에선 저녁에 즐길 만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거든요. 저녁시간을 외롭게 보내는 외국인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책도 읽고 음악도 듣는 거예요. 그러다 서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생길 거고요.

이런 소문이 도시에 퍼지면 이곳으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생겨나겠죠.”

그는 지금 무주 적상산 자락에 있는 초리마을에 산다. 5년 전 ‘첫 마을’이란 뜻의 이 마을에 등지를 튼 뒤, 일과 생활과 놀이가 하나 되는 삶을 이어오고 있다. 오래도록 방황해온 자신에게 기꺼이 ‘비밀 언덕’이 돼준 곳. 고마운 이곳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다.



그의 꿈들은 고스란히 한 권 한 권의 책으로 탄생 중이다. <사람 사는 대안마을> <마을 시민으로 사는 법> <마을을 먹여 살리는 마을기업> 등 여러 권의 책을 이미 냈고, <마을주의자> <행복사회 유럽> <농촌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100가지 방법> 등 여러 권의 책이 곧 나온다. 그 가운데 <사람 사는 대안 마을>은 지속발전이 가능한 지역공동체마을 20곳을 손이 아닌 ‘발’로 쓴 것이다. 직접 취재한 그 마을들 가운데 그가 주저 없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마을은 모두 세 곳. 홍성 홍동마을, 단양 한드미마을, 임실 치즈마을이 그곳이다. 모두 마을시민과 마을기업이 주축이 된, 사람 사는 대안마을들이다.

“세 마을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마을양로원 사업을 추진 중이에요. 마을 안에 양로원이 들어서면, 나이 들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져도 마을을 떠날 필요가 없어요. 살던 마을에 그대로 모여 살면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으며 늙어갈 수 있죠. 마을 안에서 다함께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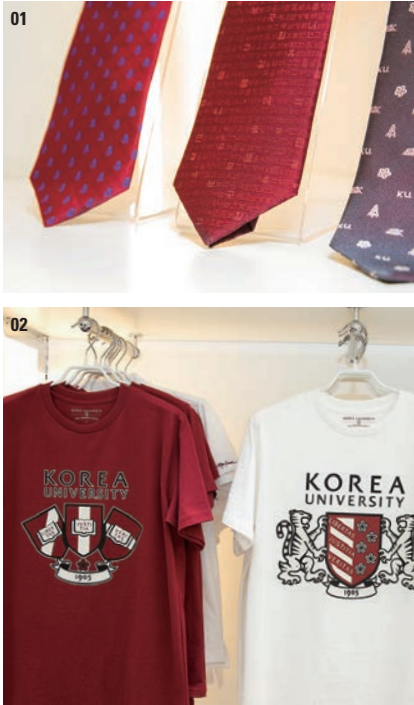
그의 신경은 온통 ‘모두’가 잘 사는 방법에 가있다. ‘나’를 위해 고민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불현듯 사무치게 고마워진다. 🍷





# 소품으로 만나는 크림슨 홀릭

갖고 싶고 나누고 싶은  
고대인의 자부심  
크림슨 센터




작년 9월 오픈한 ‘크림슨센터(Crimson Center)’가 고대를 방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다. 고대를 상징하는 다양한 기념품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의 소품까지 확대되어 보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준다. 국내 대학들 대부분이 UI를 활용한 배지와 티셔츠, 컵, 열쇠고리 정도로 기념품 수준의 라인업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크림슨 센터에서는 고대 UI를 활용한 골프공과 백팩, 넥타이, 스카프, 자개를 활용한 필통 등 예술품과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에서 고대 농장의 참기름과 고대 와인까지 고려대학교의 브랜드 샵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고대 교우들로 이루어진 젊은 창업자들의 작품도 눈에 띈다. 고려대학교 디자인혁신센터가 개발한 고유의 브랜드인 ‘the Crimson Line’의 심플하면서도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수제 컵과 저금통, 디자인 조형학부 출신의 학부생들이 고려대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를 거쳐 첫 선을 보이는 창의개발 종이완구인 페이퍼메카닉, 부러진 야구배트를 재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키는 사회적 기업 비스퀘어의 연필통과 소품 등은 이 공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01\_ 고대 로고와 오얏꽃, 호상비문 등을 문양으로 한 넥타이.  
02\_ 다양한 고대 로고 티셔츠.  
03\_ 고대 출판부의 서적부터 작은 뱃지까지 한 곳 모여있다.  
04\_ 고대를 찾는 낯선이들에겐 브랜드 샵의 역할을 한다.





- 01\_ 날개 자석은 저렴하면서도 기념이 되는 인기품목.
- 02\_ 고대 로고가 새겨진 다기세트.
- 03\_ 종이에 기계공학적 원리를 결합한  
페이퍼 메카닉의 장난감.
- 04\_ 부러진 야구방망이를 재활용한  
비스켓아트 제품들.

크림슨센터 내에는 브랜드숍 외에도 고대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웰컴센터의 공간도 있다. 웰컴센터는 고려대를 처음 찾는 방문객들에게 고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형 멀티비전을 통해 관련 영상이 제공되고, 고려대학교를 알리는 각종 홍보물과 책자들이 비치되어 있다. 또한 웰컴센터에서는 예약을 통해 고려대학교 111년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웰컴투어를 진행하며, 셀프 견학이 가능하도록 캠퍼스 맵 및 추천 견학코스 등도 안내하고 있다. 



## “고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학생홍보대사 여울  
민정희(미디어학부 14)

### Q. 어떤 일을 하나요?

크림슨센터에 상주하면서 ‘웰컴투어’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루에 여덟 번의 투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시간에 예약하시거나 방문하신 분들께 학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주 중에는 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학과소개, 입학, 교과과정, 진로 등에 관해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주말에는 가족단위나 오랜만에 방문하신 교우 분들의 투어를 도와드려요. 특히 월, 수, 금 4시에는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영어투어를 진행한답니다.

### Q. 방문객 반응은 어떤가요?

목표로 한 학과가 있는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활발한 질문을 해요. 교우 분들에게서는 학교 다닐 때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실 때는 기뻐하시고, 다른 점에는 신기해 하세요. 대개 고대를 사랑하는 분들에게서 투어에 참여하시는데요. 한 번은 한국전쟁 때 학교 건물에 숨어계셨던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다시 학교를 방문하시니 감회가 새로우셨던지 목놓아 우시더라고요.

### Q. 주로 어떤 기념품을 찾으시나요?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에게서 옷을 많이 사가세요. 아동부터 성인사이즈까지 갖춰져 있어서 함께 옷을 맞춰 입는 경우가 많고요. 학생들은 학용품이나 배지를 많이 찾아요. 상품의 종류가 많아 방문객 여러분의 만족도가 높아요.

### Q. ‘웰컴투어’를 진행하면서 보람 있을 때는 언제인가요?

역시 고대인으로서 고대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매번 즐겁죠. 하지만 가장 보람 있을 때는 고려대학교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고 특별한 감정이 없으셨던 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관심이 생기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예요. 홍보대사로서 고대를 알렸다는 사실에 뿌듯해지죠.





## “장학금은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꿈을 위한 시간이자 기회”

작년 기계공학부 50주년을 맞아  
1억 원을 기부한 이현기 교수.  
직접 대화해 본 그는 기부의 진정한 의미와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현기(기계공학 72)



이현기 교수는 2006년부터 기부를 해왔다. 고려대 기계공학부가 좋은 학부라는 것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연구실적이나 사회에 배출된 인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부를 시작했다.

“그 시작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이런 친구들은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학점이 안 나와 장학금을 못 받고 끝내 졸업마저 못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해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 뒤로 이현기 교수는 오랜 기간 기부를 해오면서 수혜 학생들과 관계를 맺었고,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었다.

“작년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줄여 이번엔 성적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상당히 기쁘더라고요. 또 한 학생은 졸업 후 현대자동차에 입사했다고 연락이 와서 함께 축하주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마침 새로운 장학금 수혜학생 역시 졸업 후 현대자동차에 취업하고 싶다고 해 두 친구를 불러 술 한잔 먹으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중산층에서도 기부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선진국의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다 보니까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제 기부가 기부마인드의 조그만 씨앗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널리 퍼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흡사 이현기 교수를 중심으로 장학생 커뮤니티가 형성된 모습이다. 이 교수의 따뜻한 면모를 보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꼭 기부를 하겠다고 장학생들이 다짐하기도 했다고.

“이런 맛에 기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편이 안 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금만 도와줘도 성적장학금을 받고 또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큰 변화가 있으니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죠.”

수혜학생들 이야기를 하며 이 교수의 얼굴엔 어느새 함박웃음이 번져 있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사를 10번이나 할 정도로 어렵게 공부한 이현기 교수는 장학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었다.

더욱이 산업화 초기에 졸업한 본인 세대는 사회진출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으나 지금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우리 기성세대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틈나는 대로 기부를 권해보지만, 생각만큼 반응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기부문화가 정착이 안 돼서 그렇겠죠. 한국은 기부자들 역시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회사차원에서 절세나 사회공헌을 위해 큰돈을 기부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한 푼 한 푼 모은 돈을 아낌없이 기부하는 게 많은 거 같아요. 중산층에서도 기부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선진국의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다 보니까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제 기부가 기부마인드의 조그만 씨앗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널리 퍼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만화책을 좋아했다는 이 교수는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 탱크를 개발하고 싶었다. 상상력과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었던 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고려대 기계공학부에 들어갔다고.

“졸업 후에는 대우자동차에 입사해 자동차 설계를 했어요. 설계에 대한 자부심이 컸죠. 또 그 업계에서 일하면서 자체적인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만의 자동차 설계를 개발해온 회사와 외국의 설계를 가져다 쓴 회사의 격차가 벌어지는 걸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와 같은 관점에서 고려대 기계공학부에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만한 자기만의 획기적인 제품이나 연구논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땅 밑으로 가는 탱크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졌던 것처럼 창조적 역량을 가진 후배들이 많이 배출돼서 사회를 이롭게 했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인생 목표나 지향점이 모두 고려대에서 형성되었다는 이현기 교수. 자기 세대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젊은 세대에 관심을 두며 부조리를 방관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고대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

장학금 수여식 후 수혜 학생들과 공대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







# KU PRIDE CLUB!

## 고대사랑 게시판을 채운 기부자들의 메시지

2015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개교 110주년 기념식에서 출범한 KU PRIDE CLUB은 민족고대를 세계고대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수, 학부모, 교직원, 고대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자부심을 모으는 뜻 깊은 운동이다. '과연 소액정기기부 캠페인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KU PRIDE CLUB은 2016년 2월 11일 기준, 기부자 1857명, 6587구좌를 달성하며 출범 9개월 만에 올해 목표 기부자 수의 92%를 달성해냈다. 새로운 대학 기부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KU PRIDE CLUB이 이렇게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고대를 사랑하는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기부자 분들의 메시지를 다 전할 수는 없지만 KU PRIDE CLUB이 백년지대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몇 분의 메시지를 대표로 전한다. 많은 기부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속에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 개혁하는 지성의 전당'으로 우뚝 솟은 고려대가 있을 것이다.

### KUPC 기금 사용처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장학제도 개편안에 따라 KUPC 기부금 역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인다. 학비 걱정은 덜었지만 여전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환학생은 꿈도 꾸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희망교환학생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려대 앞에서 30년 동안 식당과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고대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지요. 그래서 고려대에도 꾸준히 기부해왔는데, 이번에 KU PRIDE CLUB을 소개 받고는 곧바로 30구좌씩 기부하기로 했어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언제까지나 후원할 거예요.

**최필금**  
(고대를 사랑하는 사람, 유정식당 사장)



2015년 한·미·일 메이저 대회를 석권한 세계적 골퍼, 전인지 선수가 KU PRIDE CLUB을 응원하며 사인메시지를 남겨 주었습니다.

**전인지 (사회체육학부13)**

KU pride club 파이팅!

기부금이 학생들의 장학금과 연구기금으로 쓰여 더 발전해 있을 고려대학교를 상상하며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윤의(학부모, 이기탁 영문14)**



학생으로서, 직원으로서 소중한 시간들을 보낸 고려대학교가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생각을 가지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금철**  
(전 안암학사 관리운영팀 부장, 지질학과73)

한 사람이 큰 금액을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KU PRIDE CLUB처럼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하는 것이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65세가 되어 사회생활을 은퇴한 기학번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매달 기부를 한다는 건 정말 큰 의미지요. KUPC가 성공하려면 모든 교우가 진짜 열심히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정기총회, 송년회, 아유회, 역사 답사 등을 할 때마다 교우들이 KUPC에 가입할 수 있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전병일 교우(생물71)**



아이가 전액장학금을 받고 학교도 즐겁게 다니는 모습에 감사해서 학교 발전에 힘을 보탭니다.

**박순선**  
(학부모, 서지수 경영15)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부부의 집에는 교수님 등 많은 고대인들이 놀러옵니다. 아들 3형제도 모두 고대 SUMMER 스쿨을 다녀와서 고대 사랑이 깊고요, KU PRIDE CLUB에 기부를 하고 나서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대뜸 7살 먹은 손주가 이려더군요. "할머니도 우리 학교에 기부하시니까, 나도 할머니 학교에 기부하겠다."고요. 어린 손주가 그렇게 말하니 평소에도 고대를 좋아하던 아들, 며느리들도 모두 기부하겠다고 해, 어느새 가족 10명이 KU PRIDE CLUB에 가입했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다른 분들도 KU PRIDE CLUB을 통해 가족 간에, 친구들 간에 더욱 돈독해지고 학교 발전도 이끌기를 바랍니다.

**김숙자(사학66)-이병기(의학64) 교우 부부 외 가족 8분**

I am pleased to support the KU PRIDE CLUB's effort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students in need. These students' active involvement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the intellectual vitality of our student body.

**제임스 포터(교직원, James William Potter)**



KU PRIDE CLUB으로 가장행편이 어려운 후배들에게 마음 편히 공부할 시간과 더 넓은 세상을 접할 기회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박주영 교우(체육교육04)**

KU PRIDE CLUB 파이팅!



2015 LPGA 올해의 선수 리더이고(심리15) 선수가 KU PRIDE CLUB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찍어 주었습니다.

**리디아고(심리15)**

KU pride club 파이팅~!



모교 사랑이 깊은 아버지께서 '너도 고려대 발전에 기여해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힘든 요즘, 고려대 학생들이 KU PRIDE CLUB으로 지원을 많이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배기원(고대를 사랑하는 사람, 대학생)**







#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자 명단


10억이상					
(주)일진글로벌(의정 이상일 장학57)	2,000,000,000				
1억이상 10억 미만					
이상문(밀송산업 회장)	500,000,000				
(재)고려대학교한국신학언론통합연구재단(이사장 홍석인)	303,300,000				
(주)씨엔에스자산관리(회장 김현수 권석우 경제70)	300,000,000				
황중익(두송병원 원장 의학75)	202,600,000				
재단법인 남촌재단(이사장 허창수 상학67)	200,000,000				
사회복지법인(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이사장 변형운)	133,000,000				
(재)삼성복지재단(이사장 이수연)	132,300,000				
윤태석(주)세종 대표이사 KNA회고위과정14)	101,000,000				
(주)버틀(이병교 대표이사 화공63)	100,000,000				
(주)세돌(대표 김형진,홍기욱)	100,000,000				
(주)엘미농수산(대표이사) 오영철 최고위)	100,000,000				
LS-Nikko동계연회	100,000,000				
국민은행 중앙동지점(지점장 이상록 KNA회고위14)	100,000,000				
(재단)글로벌(대표이사 부회장 김재동 경영79)	100,000,000				
(주)신산업(회장 윤규남 농학70)	100,000,000				
연민회(경영48)	100,000,000				
익명	100,000,000				
전규수(세진맥물 회장 상학61)	100,000,000				
홍윤러스 a관리재단(대표 도성환 경영74)	100,000,000				
5천만원이상 1억 미만					
85학동학기회(입학30주년준비위원회)	88,012,280				
최철균(최고위08)	70,000,000				
한국군중연구소소장 배연재)	60,613,451				
이선용(㈜이시안스타 대표이사)	57,000,000				
(주)삼구이앤씨(대표 대표 강재85)	50,000,000				
(주)코반(대표 이윤기 최고인문과점00)	50,000,000				
(주)보산(회장 류진)	50,000,000				
김성근(미래성장 최고지도자과정14)	50,000,000				
비야네르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원철)	50,000,000				
오로라월드(주)(대표 홍기선 노철열 연구과정98)	50,000,000				
아구산업(주)(회장 손인규)	50,000,000				
이주원(교수)	50,000,000				
1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한국대학농구연맹	45,000,000				
안태현(㈜비즈니스 교육 대표이사 불문85)	41,000,000				
고려레깅스(대표 한철수 기계7)	40,000,000				
고재호(유남전기 대표이사 기계공74)	36,000,000				
서성욱(교수)	35,000,000				
익명	32,000,000				
(재단)흔클럼신영연구기금	30,000,000				
(주)인텔코리아(대표이사 이승현)	30,000,000				
고려대학교교우회	30,000,000				
김정식(주)메디칼그룹세아리단 회장 E-MBA05)	30,000,000				
김용덕(교수)	30,000,000				
윤호영(가족 이의종 경영78)	30,000,000				
조종현(교수)	30,000,000				
최성진(주)화장 구분는 경영70)	30,000,000				
스물세인베스트먼트(소양정학기금)	26,560,000				
한재준(봉소아형소년과의원 원장 의학93)	24,000,000				
(재단)양재재단(이사장 김상하)	20,000,000				
박주영(세교04)	20,000,000				
연문대학원 최고위연구과정 44기	20,000,000				
재단법인 동아광나무재단(이사장 김병진 경영62)	20,000,000				
주식회사 아도(대표 배정철)	20,000,000				
안성호(주)에이시스템 사장 자철87)	18,000,000				
이병철(법학76)	18,000,000				
이철진(교수)	18,000,000				
김병배(영병메이트즈 대표 기계공0)	16,076,923				
(재단)안재단육영장학회(이사장 김두연)	16,000,000				
김정민(ICP 39기 회장)	15,000,000				
신경(교수)	14,930,000				
김병태(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대표세교80)	14,000,000				
우윤식(밀진포장산업 대표 경영82)	14,000,000				
정성훈(주)피에스오상 대표이사 법학82)	13,400,000				
이주태(미도교육학) 대표이사 영문75)	12,300,000				
김용현(신홍기잡사 대표 경영90)	12,000,000				

5천만원이상 1억 미만					
85학동학기회(입학30주년준비위원회)	88,012,280				
최철균(최고위08)	70,000,000				
한국군중연구소소장 배연재)	60,613,451				
이선용(㈜이시안스타 대표이사)	57,000,000				
(주)삼구이앤씨(대표 대표 강재85)	50,000,000				
(주)코반(대표 이윤기 최고인문과점00)	50,000,000				
(주)보산(회장 류진)	50,000,000				
김성근(미래성장 최고지도자과정14)	50,000,000				
비야네르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원철)	50,000,000				
오로라월드(주)(대표 홍기선 노철열 연구과정98)	50,000,000				
아구산업(주)(회장 손인규)	50,000,000				
이주원(교수)	50,000,000				
1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한국대학농구연맹	45,000,000				
안태현(㈜비즈니스 교육 대표이사 불문85)	41,000,000				
고려레깅스(대표 한철수 기계7)	40,000,000				
고재호(유남전기 대표이사 기계공74)	36,000,000				
서성욱(교수)	35,000,000				
익명	32,000,000				
(재단)흔클럼신영연구기금	30,000,000				
(주)인텔코리아(대표이사 이승현)	30,000,000				
고려대학교교우회	30,000,000				
김정식(주)메디칼그룹세아리단 회장 E-MBA05)	30,000,000				
김용덕(교수)	30,000,000				
윤호영(가족 이의종 경영78)	30,000,000				
조종현(교수)	30,000,000				
최성진(주)화장 구분는 경영70)	30,000,000				
스물세인베스트먼트(소양정학기금)	26,560,000				
한재준(봉소아형소년과의원 원장 의학93)	24,000,000				
(재단)양재재단(이사장 김상하)	20,000,000				
박주영(세교04)	20,000,000				
연문대학원 최고위연구과정 44기	20,000,000				
재단법인 동아광나무재단(이사장 김병진 경영62)	20,000,000				
주식회사 아도(대표 배정철)	20,000,000				
안성호(주)에이시스템 사장 자철87)	18,000,000				
이병철(법학76)	18,000,000				
이철진(교수)	18,000,000				
김병배(영병메이트즈 대표 기계공0)	16,076,923				
(재단)안재단육영장학회(이사장 김두연)	16,000,000				
김정민(ICP 39기 회장)	15,000,000				
신경(교수)	14,930,000				
김병태(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대표세교80)	14,000,000				
우윤식(밀진포장산업 대표 경영82)	14,000,000				
정성훈(주)피에스오상 대표이사 법학82)	13,400,000				
이주태(미도교육학) 대표이사 영문75)	12,300,000				
김용현(신홍기잡사 대표 경영90)	12,000,000				

한국의학연구소	9,000,000				
홍창표(홍연자·하영미 대표 기계공71)	8,676,923				
(사)KBL(일반)	8,000,000				
유국남(㈜대정 대표이사 화학62)	8,000,000				
협진제약(주)(대표 이문구 농학70)	8,000,000				
익명	7,887,000				
재료공학과 85학번동7기	7,800,000				
최윤정(늘푸른소아과 원장 의학89)	7,200,000				
우한승(에이치케이기업 대표)	7,000,000				
김현욱(수교8)	6,500,000				
신영규(영문소아형소년과의원 원장 의학81)	6,142,862				
오유근(경영63)	6,003,500				
경영전문대학원E-MBA교우회	6,000,000				
김위철(한대전자·하영철 대표이사 최고경영관리과정77)	6,000,000				
박동진(박동건소아과의원 원장 의학83)	6,000,000				
손무성(이순&김 글로벌 대표이사 사장 경영78)	6,000,000				
송동호(아미레그리엄 원장 의학73)	6,000,000				
안영철(신동원해안치설립) 대표이사 무역75)	6,000,000				
오운원(동신산업 회장 경영54)	6,000,000				
익명	6,000,000				
익명	6,000,000				
정희선(한대자동차부 부회장 경영89)	6,000,000				
(주)고씨씨씨(대표 방성준 정책대학원12)	6,000,000				
피터훈(영문소아형소년과의원 원장 의학86)	6,000,000				
이택원(주)우선시스템 대표이사 기계공82)	5,676,923				
박규원(교수)	5,529,333				
정진건(경영85)	5,200,000				
김병배(영병메이트즈 대표 기계공0)	5,000,000				
고대여성법조인	5,000,000				
권미화(가족 박찬우 건축공85)	5,000,000				
김기경(경영85)	5,000,000				
김상식(교수)	5,000,000				
김진석(국문85)	5,000,000				
매일진(주)(대표 김진석 경영정보대학원87)	5,000,000				
문선호(중문85)	5,000,000				
박순자(경영61 가족 왕규철 경영61)	5,000,000				

서재권(경영90)	5,000,000				
서종식(화학합동조합법인)	5,000,000				
송영욱(국문85)	5,000,000				
안익식(교수)	5,000,000				
양병승(생물공92)	5,000,000				
양태규(라벨메트 대표)	5,000,000				
연성정(화학학위)대표 오창영)	5,000,000				
왕규철(홍진실업 대표이사 컴퓨터학 학1)	5,000,000				
왕규철(생물공92)	5,000,000				
왕태규(국문85)	5,000,000				
이현우(법학85)	5,000,000				
이홍용(농화학75)	5,000,000				
장영기(법학85)	5,000,000				
재단법인 인성장학회(이사장 이백수)	5,000,000				
정호진(경영86)	5,000,000				
주식회사 윤송이앤씨(대표 정호계 경영대학원1)	5,000,000				
차경호(가족 차승하 의예4)	5,000,000				
한국은행(주)(대표이사 정현웅 기계73)	5,000,000				
하인택(기계공70)	5,000,000				
홍사진(산업공76)	5,000,000				
왕성훈(경영85)	5,000,000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서필리앤씨(대표 강경아)	4,866,000				
김동우(중문90)	4,840,000				
외과식(역학및보건정보2)	4,661,000				
김영석(삼일화학교법인 부회장 경영75)	4,300,000				
(재단)신기년회(이사장 이윤준)	4,200,000				
(주)에스케이피앤씨(대표 이윤훈 경영84)	4,200,000				
정택주(TVC로퍼앤씨 대표 상학85)	4,200,000				
(주)비디오텍스(대표 박동순)	4,000,000				
75학동동기회(입학40주년준비위원회)	4,000,000				
강정진(경영83)	4,000,000				
김치현(교수)	4,000,000				
박영민(김정국유기화학소 회장 생명환경최고위08)	4,000,000				
서울유망학회	4,000,000				
신승철(국민화학회 신승훈사무소 대표 영교85)	4,000,000				
이상욱(형원수산 대표 상학86)	4,000,000				
이선진(일반)	4,000,000				
(주)태양에너지씨	4,000,000				
하이진진출발소주식회사	4,000,000				
익명	3,800,000				
김진희(NH-NHS)주 대표이사 통계85)	3,753,798				
원익구(㈜BGTNA 대표이사 통계85)	3,753,798				
김영서(글로벌비즈니스학위14)	3,700,000				
이강호(기계공83)	3,600,000				
김의정(경영88)	3,600,000				
남영철(남인과의원 원장 의학72)	3,000,000				
이철재(주)리강인 대표이사 신병69)	3,600,000				
최홍성(교수)	3,500,000				
Marvin Chow	3,474,990				
이승택(한화건설 부사장 기계공75)	3,260,000				
고대김우희	3,030,000				
(사)한국신금(대표 전영기)	3,000,000				
(주)스파르손에너지(대표이사 박신환)	3,000,000				
(주)엘&에스(대표 이상호 경영90)	3,000,000				
LG전자(주)부화정 구분본)	3,000,000				
국한표(국속광장기금)	3,000,000				
기철(법학85)	3,000,000				
김경동(경영81)	3,000,000				
김명욱(수교81)	3,000,000				
김성현(주) 삼구 시장 서문3)	3,000,000				
김수중(법정학위)주주인협연)	3,000,000				
김정욱(김정국내과의원 원장 의학66)	3,000,000				
김진원(경영90)	3,000,000				
노익정(한국라이프 사장 사회88)	3,000,000				
반우영원(세종)	3,000,000				
변희경(교육경영최고위15)	3,000,000				
서상식(경영90)	3,000,000				
김기경(경영85)	3,000,000				
신형교(가족 신현구 생체외공학10)	3,000,000				
양성철(중문86)	3,000,000				
이규림(LN법학연구소 대표이사 행정89)	3,000,000				
이병진(우정총 대표이사 생활89)	3,000,000				
이세경(직업)	3,000,000				

이은자(삼화아구 사장)	3,000,000				
이형현(법학85)	3,000,000				
재단법인 아리피(이사장 조소현 법학76)	3,000,000				
전현수(경영85)	3,000,000				
진서훈(교수)	3,000,000</				



#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자 명단

구분	기부자명	기부금액	기부일자
----	------	------	------

정승환(교수)	840,000	박건휘(경영90)	500,000
정영현(교수)	840,000	박기봉(경영90)	500,000
조영선(교수)	840,000	박병우(경영90)	500,000
차원택(교수)	840,000	박병준(경영90)	500,000
차진애(교수)	840,000	박성철(경영90)	500,000
채이신(교수)	840,000	박신식(교수)	500,000
최영홍(교수)	840,000	박영수(경영90)	500,000
최영호(교수)	840,000	박영훈(MING CO 대표 행정89)	500,000
하태훈(교수)	840,000	박용원(지교85)	500,000
홍영기(교수)	840,000	박장우(경영90)	500,000
박영숙(영교85)	800,000	박진우(경영81)	500,000
이상철(기계공83)	800,000	박찬우(경영90)	500,000
이종수(국문83)	800,000	변철형(경영90)	500,000
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회	800,000	서승식(경영90)	500,000
정은관(지교85)	800,000	서임자(가족 현문세 사회03)	500,000
정작진(기계공83)	776,923	손미나(간호85)	500,000
김정호(통계85)	752,280	송용남(교수)	500,000
박남규(경영83)	720,000	신태휘(일반)	500,000
신태택(교수)	720,000	신호준(행정85)	500,000
김윤학(기계공79)	700,000	심준희(교수)	500,000
이병규(경영90)	700,000	양승호(기계공77)	500,000
홍철환(기계공72)	700,000	양영기(무역90)	500,000
구진희(기계공78)	676,923	양준영(경영90)	500,000
김기호(취창업기술 시장 기계공78)	676,923	오연관(경영87)	500,000
신형호(유아보육 대표이사 기계공84)	676,923	오유환(교수)	500,000
정길철(성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기계공77)	676,923	오재진(보조리엔지니어링사무소대표이사 대표번호서 발행처)	500,000
최국균(그린텍스주 대표 기계공83)	676,923	우정훈(기계공79)	500,000
최동현(한국BIM 대표 기계공77)	676,923	유재택(간기공75)	500,000
오윤택(기계공73)	660,000	유태진(영등포병원 이사장 의학58)	500,000
이명준(유세원비즈니스 대표 체교85)	660,000	윤아정(경영83)	500,000
김장수(김장수건축의원 원장 의학81)	642,857	윤장미(교육경영학교취교정15)	500,000
권택훈(화학99)	610,000	이관희(경영90)	500,000
전정택(의학85)	600,350	이호진(행정89)	500,000
(재)한강문화재단구원	600,000	이상익(경영90)	500,000
(주)신한금융축(대표 김용근 행정82)	600,000	이상철(법학04)	500,000
KT&G 상상벤처기금운영위원회(대표 강건열)	600,000	이상태(법학71)	500,000
강승남(글로벌라이프 대표이사 체교85)	600,000	이영희(교수)	500,000
강승도(명송의료의원 원장 의학79)	600,000	이종택(기계공93)	500,000
김현수(김현수피부비뇨기과 원장 의학68)	600,000	이원식(경영90)	500,000
김정홍(국공보12)	600,000	이원진(교수)	500,000
고병규(무역90)	600,000	이준해(경영90)	500,000
곽상준(경영90)	600,000	이중현(경영86)	500,000
곽영진(화학88)	600,000	이진태(교재US 대표 자연과학부98)	500,000
구신미(디자인연구소 대표이사 행정85)	600,000	이창윤(법학12)	500,000
구형준(무역90)	600,000	이형룡(경영85)	500,000
구희덕(상심소보닷컴 대표이사 행정67)	600,000	이태식(노문85)	500,000
권현희(지교85)	600,000	이형식(경영90)	500,000
기아대책복지나눔세종점	600,000	이호진(경영90)	500,000
김정택(통계74)	576,000	임승철(경영90)	500,000
김계원(김박내과의원 원장 의학81)	550,000	임백연(영교85)	500,000
김기홍(기계공72)	549,000	장규진(의학96)	500,000
김덕진(경영90)	529,760	전진업(경영90)	500,000
김윤홍(기계공85)	517,840	장광식(경영90)	500,000
김범우(통계85)	500,000	정민(세무법인 흥정 대표 행정72)	500,000
김상환(기계공70)	500,000	정영삼(유아전문시스템 부회장 기계공67)	500,000
김신태(잠실서울과과 원장 의학83)	500,000	정병욱(교수)	500,000
김신성(경영90)	500,000	정신화(간호85)	500,000
김영득(기계공74)	500,000	정승환(기계공75)	500,000
김영의(북한학99)	500,000	정재환(기계공67)	500,000
김영철(경영90)	500,000	정학희(경영90)	500,000
김영희(HK-MKOREA 대표 신병67)	500,000	정현(경영91)	500,000
김인현(사학85)	500,000	재정홍(무역90)	500,000
김장정(서울정형외과 원장 의학78)	500,000	조광수(경영90)	500,000
김재철(경영90)	500,000	조승희(간호85)	500,000
김재민(기계공90)	500,000	조영관(경영84)	500,000
김종욱(교수)	500,000	조주근(조주근사무세무회사무소 대표 경영90)	500,000
김종호(무역90)	500,000	조준환(경영90)	500,000
김준호(법학82)	500,000	조장혁(경영90)	500,000
김전원(영문93)	500,000	지석우(축산81)	500,000
김태환(기계공82)	500,000	최동욱(무역90)	500,000
김학수(경영90)	500,000	최병환(통계85)	500,000
노경진(의학74)	500,000	최선준(교육경영학교취교정15)	500,000
문상철(경영84)	500,000	최세준(경영90)	500,000
문원우(경영90)	500,000	최승용(기계공85)	500,000
민정기(기아건축사무소 대표 건축공80)	500,000	최원철(간호85)	500,000
박진원(산업81)	500,000	최은주(간호85)	500,000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자 명단

표기된 금액은 2015년 11월 5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의

약정액(원) 기준입니다(금액, 가나다 순 정렬).

구분	기부자명	기부금액	기부일자
----	------	------	------

오민근(통계85)	350,760	안정용(무역85)	300,000
이종식(통계85)	350,760	여진규(기계공82)	300,000
이홍주(통계85)	350,760	임창열(경영90)	300,000
임경태(통계85)	350,760	염홍식(교육85)	300,000
최순진(경영85)	350,760	오영표(대우전자 부사장 기계공79)	300,000
박영준(통계85)	350,000	오현식(토목공85)	300,000
최광원(기계공73)	350,000	우일영(기계공78)	300,000
현숙문(법학85)	340,000	우재현(농화학85)	300,000
김정희(기교85)	330,000	우창선(교육85)	300,000
김인수(통계85)	300,304	유경식(교수)	300,000
강상현(노문85)	300,000	이영근(행정85)	300,000
유승남(영교85)	300,000	유영민(토목공85)	300,000
강신식(강신식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의학74)	300,000	유종현(컴텍컨설팅 대표이사 기계공79)	300,000
강준현(체교85)	300,000	유진숙(노문85)	300,000
강형식(지교85)	300,000	윤아준(통계85)	300,000
강형환(노문85)	300,000	이경로(기계공82)	300,000
강희철(토목공85)	300,000	이경선(경영87)	300,000
고영호(지교85)	300,000	이계원(전자전산공85)	300,000
권수국(간호85)	300,000	이관호(토목공85)	300,000
김각경(취창업종합건설 대표 건축공71)	300,000	이능영(경영85)	300,000
김경현(취투아리종합코아 대표이사 교육85)	300,000	이도현(경영90)	300,000
김기영(법학87)	300,000	이동규(노문85)	300,000
김동승(토목85)	300,000	이동환(사할의도시 대표 건축공85)	300,000
김광수(지교85)	300,000	이명길(통계85)	300,000
김상기(기계공82)	300,000	김호진(대동공주 대표 기계공74)	300,000
김성호(무역90)	300,000	강병목(경영90)	200,000
김주진(국교기초 대표이사 농화학88)	200,000	김승수(가족 박희찬 외제5)	179,000
이상우(노문85)	300,000	김종률(가족 김현나 외제5)	179,000
이선호(토목공85)	300,000	김장선(가족 김현호 외제5)	179,000
김은진(간호85)	300,000	김현욱(가족 김경호 외제5)	179,000
김재욱(기계공79)	400,000	김아준(농화학85)	200,000
김영욱(토목공85)	400,000	김영민(경영74)	200,000
김원식(토목공85)	400,000	김동원(교수)	200,000
김준민(통계85)	400,000	김병진(기계공83)	200,000
김희준(무역90)	400,000	김승수(경영90)	200,000
김하준(경영87)	400,000	이원배(경영74)	200,000
김한기(토목공85)	400,000	김재철(기계공76)	200,000
김현수(교육85)	400,000	김지희(기계공80)	200,000
김현태(교육85)	400,000	니승도(통계92)	200,000
김하준(경영87)	400,000	노영식(사회83)	200,000
김한기(토목공85)	400,000	윤성환(가족 윤호근 외제5)	200,000
김현수(교육85)	400,000	박정현(행정98)	200,000
김현태(교육85)	400,000	박종우(가족 배기덕 외제5)	200,000
남병훈(전자과학85)	400,000	안강선(가족 안성현 외제5)	179,000
류승연(교육85)	400,000	안미경(가족 오상식 외제15)	179,000
마성철(통계85)	400,000	안창일(가족 안우진 외제5)	179,000
박세희(교수)	400,000	안태호(가족 안이현 외제5)	179,000
박남규(기계공72)	400,000	안민환(가족 임호연 외제5)	179,000
김준(통계85)	400,000	오상희(가족 박윤철 외제5)	179,000
김준경(생물85)	400,000	오형환(통계92)	179,000
김철희(무역90)	400,000	노영식(사회83)	200,000
김하준(경영87)	400,000	유성환(가족 윤호근 외제5)	179,000
김희주(토목공85)	400,000	윤성환(가족 윤호근 외제5)	179,000
김현수(교육85)	400,000	윤성환(가족 윤호근 외제5)	179,000
김현태(교육85)	400,000	윤안나(가족 신동률 외제5)	179,000
남병훈(전자과학85)	400,000	윤조현(외제15)	179,000
류승연(교육85)	400,000	윤기환(기교85)	200,000
안창일(통계85)	400,000	북민규(기계공79)	200,000
오기환(마당 대표 기계공72)	400,000	장영주(통계85)	300,000
오정욱(기계공72)	400,000	장민석(경영90)	300,000
유상도(교수)	400,000	장민석(경영90)	300,000
윤봉준(교수)	400,000	문호자(경영87)	300,000
윤철원(교수)	400,000	민병준(체교85)	300,000
이영	400,000	민태휘(통계85)	300,000
박정호(경영90)	400,000	박도원(토목환경공85)	300,000
장광식(경영90)	400,000	박상규(토목공85)	300,000
장성환(기계공72)	400,000	박찬기(기계공82)	300,000
자성원(교수)	400,000	박원(토목공85)	300,000
최무현(교수)	400,000	박정호(경영90)	300,000
김기환(교수)	376,380	박태영(경영84)	300,000
장신화(통계85)	376,380	박희정(지교85)	300,000
김경민(통계85)	376,380	박희정(지교85)	300,000
박길주(통계85)	376,380	변영준(의학92)	300,000
심성보(통계85)	376,380	백규호(토목공85)	300,000
유대선(통계85)	376,380	반재홍(체교85)	300,000
이기영(통계85)	376,380	변호승(교육85)	300,000
이기영(입학30주년캠페인)	376,380	서영선(통계85)	300,000
이성(입학30주년캠페인)	376,380	송동기(경영88)	300,000
상상규(토목공85)	376,380	송문식(통계85)	300,000
이영주(통계85)	376,380	송영태(경영86)	300,000
임인준(통계85)	376,380	주세운(사법86)	300,000
장동식(통계85)	376,380	최강식(기계공74)	300,000
장연수(통계85)	376,380	최상진(통계85)	300,000
하자영(입학30주년캠페인)	376,380	최성진(토목환경공85)	300,000
홍길원(통계85)	376,380	최영모(통계85)	300,000
송현상(기계공70)	376,380	최종진(기계공77)	300,000
시창현(체교85)	360,000	최종진(기계공80)	300,000
김상원(경영95)	360,000	최원준(교수)	300,000
신봉식(토목공85)	300,000	최원준(교수)	300,000
안영현(법학71)	300,000	최원준(교수)	300,000
김광영(통계85)	350,760	최원준(기계공91)	179,820
남문수(통계85)	350,760	최원준(기계공91)	179,820
신철호(체교85)	300,000	최원준(기계공91)	179,820
남민(통계85)	350,760	최원준(기계공91)	179,820
신윤원(기계공82)	300,000	최원준(기계공91)	179,820

구분	기부자명	기부금액	기부일자
----	------	------	------

하준수(토목환경공85)	300,000	정종민(통계82)	200,000	김택민(김진아원 원장 의학81)	142,857	왕성호(사회목03)	50,000	김태호(충환정보통신 대표 생령환경교회06)	10,000
한승영(경영90)	300,000	정주섭(경영78)	200,000	남상혁(구미에스성형외과 원장 의학81)	142,857	이철아(병승상13)	50,000	박영진(산업공71)	10,000
한재호(토목환경공85)	300,000	정훈(통계81)	200,000	노경아(노나라의원 원장 의학81)	142,857	이광진(이광남)	50,000	박미숙(간호84)	10,000
한홍철(통계85)	300,000	조상욱(경영92)	200,000	노요안(남광병원 원장 의학81)	142,857	최후진(경영96)	50,000	박순돌(경영00)	10,000
하재철(기계공82)	300,000	조인식(경제85)	200,000	노재현(노현안과 원장 의학81)	142,857	김주승(직원)	30,000	박영진(독문04)	10,000
홍종철(경영82)	300,000	조정현(경영78)	200,000	변용현(변용철 비뇨기과 원장 의학81)	142,857	이영훈(음용동물과학97)	30,000	박민수(기계공5)	10,000
홍진기(전자전산공85)	300,000	차일규(경영89)	200,000	백윤(교수)	142,857	여서(미디어학부11)	10,000	박지순(교수)	10,000
홍현식(토목공85)	300,000	최근환(지름커뮤니케이션 대표 연구과장03)	200,000	사동대(의학81)	142,857			손일택(자연사부 대표이사 생활71)	10,000
황철배(토목환경85)	300,000	최달(경영92)	200,000	손태수(손인과의원 원장 의학81)	142,857	무한정약자(지정발전기금)	납입단위	신금신(일반)	10,000
이훈(경영04)	260,000	최필성(경영88)	200,000	오상욱(이음주 정형외과 원장 의학81)	142,857			신원규(가족 신현구 생체아공학10)	10,000
이영근(행정85)	250,000	최호진(농화학85)	200,000	오우석(오신경외과 원장 의학81)	142,857			오상민(산업자원원장96)	10,000
이영철(행정85)	250,000	케이알아이템세 주식회사(대표 김관 정영81)	200,000	유영진(교수)	142,857	이명재(교수)	10,000	오연(일반)민국정형외과의원 원장 의학73)	10,000
강남수(은천오양병원 원장 의학88)	240,000	코모스컴정순혜사장자	200,000	오준서(오준서)비뇨기과 원장 의학81)	142,857			안옥민(법학73)	10,000